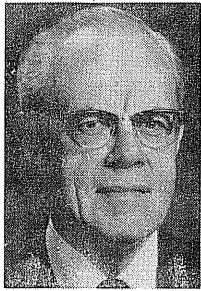


성도의 벗 11
1970





영감의 메시지

리처드 엘. 이반스
(12사도 정원회)

유혹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선이나 악을 행할 기회는 곳곳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혹을 시험해서는 안됩니다.

“어떤 사람은 유혹을 떠나면서 자신의 수신 주소를 밝혀 둔다.”라고 어떤 피력한 관찰자는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나쁜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하면 악한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하고, 유혹이 우리를 따라다니지 않기를 바란다면 관심을 가진 것처럼 행동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절벽에 가까이 가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절벽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바이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론가가 아닙니다. 창조는 이론에 의해서 그 과정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설에 의해서 봄이 다시 오고 씨앗이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적이고 도덕적이며 영적인 율법은 계속 시행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계명 역시 계속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러한 율법과 계명을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 이외에 이러한 율법을 주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권고와 계명을 주시는 교로 이러한 것들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어떠한 것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살면 이런 결과를 얻고 저런 방법으로 살면 저런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풍설에 따라 살거나, 이미 발견된 것들을 찾아 헤매며 목적없이 방황하지 마십시오. 더구나 현대의 궤변이나 유혹에 따라 생활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고와 계명에 따르는 생활을 하시고, 사려 깊으며 항상 기도 드리는 생활과 순결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화평과 행복을 발견하십시오.

1967년 10월 4일
공보부 등록 라-932

발행일 1970년 11월 1일
통권 제64호

발행인: 서 현 보

편집인: 홍 무 광

번역: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73-5331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210호
대체구좌 서울 1409
우편번호 110

인쇄소: 삼화 인쇄 주식회사

정가: 50원
1년 구독료(송료포함)
국내 450원
국의 선박 5불
항공 7불

제6권 제11호 순서 1970년 11월호

□권두언: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에 대한 우리의 관심 조셉 필딩스 미스...	1
□제140차 연차 대회에서의 총관리 역원의 말씀	
성희 제이 엠. 토드	3
1969년도 교회 통계 보고.....	5
하나님의 실제성 하워드 더블류. 헨터.....	6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트먼 벡터이세.....	8
정직은 최상의 방책 데오도르 엠. 버튼.....	10
“겨우 선생이야” 토마스 에스. 몬슨	23
구원은 가족 단위로 부르스 알. 벅콩키.....	28
나에게 사랑이 없다면 데오도르 엠. 버튼.....	12
용기있는 사람이 되자 엔. 엘돈 테너.....	13
너무 어려 학교 뭇간 태일이 케드린 씨. 필립스.....	15
양치는 소년 도로시 오. 바커	17
□관리 감독 페이지: 십일조 존 에이치. 반덴버그.....	19
성령은 유창하게 말하게 한다 보이드 케이. 팩커	20
□주일학교.....	25
사라 엠. 테너 자매 그의 가정, 가족, 교회에 대한 헌신 엘리노 노웰스.....	26
□선교부장 메시지: 속속들이 복음에 젖은 삶 서현보	30
□내외소식.....	31
□진리의 말씀: 말보다는 행동을 리처드 엘. 이반스	표3

표지 설명: 이달의 표지 그림은 화가 톰 로벨이 그린 것으로서, 칩체 요한이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아론 신권을 부여하는 장면입니다. 화가는 80년 전에 촬영된 사스케하나 강둑의 네거티브 필름으로 그곳의 경치를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사에 중대한 계기를 가져오게 한 이 사건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를 세밀히 조사했습니다. 이 그림은 현재 미조리주 인디펜덴스 시에 있는 새로 개관한 방문자 센터에서 다른 그림과 함께 전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에 대한 우리의 관심

대관장 **조셉 필딩 스미스**

●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이 지상의 여러 나라에 있는 그의 교회에 속한 충실한 성도들과 세계 도처에 생존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심에 저는 형용할 수 없는 감사를 느낍니다.

저는 매일같이 주님이 말일에 영원한 복음을 회복하시 그 율법을 믿고 순종하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말일의 하나님 왕국의 일을 통치하고 인도하시도록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위대한 예언자들의 생애와 성역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들 모두가 돌아가신 데이비드 오. 벡케이 대관장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를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알고있는 것처럼 그분은 영적으로 위대한 힘을 지니신 분이셨고, 선천적으로 타고나신 지도자이신가 하면, 성도들과 세상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으시던 분이셨습니다. 영원토록 사람들은 그분의 이름을 복되다 할 것입니다. (시 72 : 17, 잠 31 : 28참조)

벡케이 대관장은 온 세상에 대한 우리의 사명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에게 평화, 희망, 행복 그리고 세속적이고 영적인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종종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은 세계 여러 나라의 많은 백성들에게 즉 하와이, 남태평양, 라틴 아메리카와 미국 인디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나라의 백성들에게 교육을 받을 기회를 넓혀 주셨던 것입니다. 눈에 뜨일 만큼 광범위한 활동을 하신 그분의 업적을 살펴보면 그분은 능력이 미치는데까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데이비드 오. 벡케이 대관장이 이루어 놓으신 광범위하고 장래를 멀리 내다보는 긴 안목의 위업을 기뻐하셨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세상에 흠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저의 온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계속 손을 뻗쳐 그들의 생애를 축복해 주기를 권유하는 바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해의 눈이 점점 밝아지며 믿음의 성도들과 더불어 친절한 관계를 누리게 됨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저는 이처럼 선의와 기독교인의 우애가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며 계속 확대되어 나가서 이와 같은 관계로 인하여 감명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축복을 가져다 주리라는 것을 믿으며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만일 온 인류가 그들이 누구인가를 알고 이해하며 성스러운 곳에서 지상으로 왔다는 사실과 무한한 잠재력을 소

유하고 지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그들의 생활 방법을 개선하여 지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게 하는 친절과 친족애의 마음을 서로서로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존엄하며 성스러운 기원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며 모든 인류는 똑같이 영원한 가족으로서 형제요 자매들이라는 사실에 우리의 신앙은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그와 함께 살았고 그분은 우리가 힘써 노력하는 가운데 발전하고 진보하는 특권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의 계획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지니고 계시며, 온전하시고 영화로운 존재이시며, 그분은 자신이 소유하신 인품과 속성으로써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창 1 : 26 참조)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과 운명에 대하여 믿고 있는 우리의 신조는 이론과 생활 방법의 양면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근원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크고 둘째 되는 계명” (마 22 : 37—39 참조)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의 합당한 가족이 되려고 하는 자연적인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그분이 바라시는 일을 행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참된 예배의 중심이 되는 복음의 표준에 조화를 이루는 생활을 해야 하는 책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온 인류는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고로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우정을 나누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일을 참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일부로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교회내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해야 하고 우리 이웃을 섬겨야 하는 성스러운 율법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로서나 개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의 안녕에 관하여 한결같이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은 전연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들 자신과 꼭 마찬가지로 그들을 위해서도 세속적이며 영적인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를 드리며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길로 인도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 5 : 16 참조)

우리는 교회의 입장에서 덕을 세우고, 건전하며 인류를 더욱 복되고 잘 살게 향상시키는 제반 민간 활동이나 문화 사업을 권고하고 장려하고 있음을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개조의 마지막 조문은 다음과 같이 실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 그리고 만민에게 선행을 믿는다.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만 하고 듣기 좋으며 칭찬할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

것들을 구하여 마지 않는다. (신앙개조 13조)

또 주님의 계시는 “인간은 오로지 훌륭한 대업에 힘써 노력하며 자신의 자유의사로써 많은 일을 행하며 많은 의를 기록해야 하느니라.” (교성 58 : 27)고 권고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범람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화적 조류 가운데서 우리의 비위를 거스리는 것이 너무나 많으며 이것들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도덕적인 문제에 대한 모든 주장은 구약성경이나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연속되는 경륜의 시대에 계시하신 다른 경전에 있는 표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이와같은 성스러운 표준의 하나는 “사람을 덕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어두움이니.” (교성 50 : 23)라고 밝혀 주고 있습니다. 한사람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우리들 자신은 물론 모든 인류를 위해 덕을 세우고 마음의 어두움을 세우고 마음의 어두움을 밝히며 정신을 높여 주고 고상한 인품을 갖추도록 해주는 일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오늘날과 같이 고도로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서 그들 자신을 위해서 충분한 교육을 받고 그들의 이웃에 봉사하게 하는 것이 가장 으뜸이 되는 과제임을 믿으며 지난날처럼 앞으로도 계속 모든 수준의 교육을 후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따금 학원에서 발생하는 분열이나 대립에 대하여 탐탁하게 여기지 않으며 그대신 우리의 젊은이들을 권고하여 이같이 무절제한 행동보다는 도리어 법과 질서의 편에 서서 신중한 행동을 보여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 세계 여러 나라에 살고 있는 인류가 서로의 신념과 예배의 형태에 관해서 평화롭게 생활하고 통일과 형제애의 정신이 세계 만방에 가득차 있도록 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요 기원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또 세상에는 우리들과 같이 끝은 생활을 하며 실질상 우리의 표준과 똑같은 표준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모두는 한결같이 참된 예배와 통일에의 근본이 되는 그와같은 커다란 목표를 모색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들이 우리가 뻔치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우정의 손을 받아들여서는 권고와 희망을 보여 주기를 기대하며 이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곳곳에 흩어져 사는 모든 청소년의 영적 및 도덕적인 복지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생의 목적을 완전히 깨달으려면 도덕, 순결, 미덕, 죄로부터의 해방이 마땅히 우리들의 생활 방법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에 우리는 부모들이 교훈과 모범으로써 개인이 지녀야 할 순결을 가르치며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권고해 주기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또한 부모들은 스스로 의로운 생활의 모범을 보이고 가정의 밤에서나 다른 적절한 때에 자녀들과 자리를 같이 하여 복음을 가르치도록 권고합니다.

우리들은 교회내의 성장하는 젊은 세대들을 신뢰하고 있으며 그들이 세상의 유행이나 관습에 젖어들지 않고 반항 정신을 갖지도 않으며 진리와 미덕의 길을 저버리지 않도록

록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그들이 근본적으로 선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의의 기둥이 되고 점점 커가는 신앙을 갖고 효과적으로 교회의 사업을 수행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가운데서 가장 부덕하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성스러운 운명을 소유한 하늘의 귀한 족속이며 택함을 받은 세대들(벧전 2 : 9 참조)인 것입니다. 그들의 영은 지상에 복음이 회복되어 주님께서 말일에 그의 위대한 사업을 수행할 용감한 종들을 필요로 하는 이 시대에 살도록 예비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온의 젊은이들을 축복하셔서 모든 성약과 의무에 충실하게 하시며, 그들이 빛과 진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앞에 놓인 위대한 일을 대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구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오늘날처럼 교회의 젊은이들이 모든 인류가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이처럼 절실히 필요로 했던 때는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의 문(말 3 : 10 참조)을 열어 주셔서 이 지상에 살고있는 그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삶을 세속적으로나 영적으로 보다 잘 살게 할 수 있도록 영원한 축복을 많이 내려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인간들이 세상의 길을 버리고 그들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시며,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의 독생자의 복음에 담긴 빛과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며, 지상에는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형제애를, 인간의 마음 속에는 사랑이 깃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받아들여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그분을 섬기려고 하는 성도뿐만 아니라 — 세계 만방에 흩어져 사는 인간들에게도 사랑과 자비로 살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빛이 되어 그들의 자녀들을 진리와 의의 길로 인도하며 자녀들이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서 세상의 악으로부터 온전히 보호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저는 또 연약하고 나약한 자와 슬픔과 근심에 싸인 자들과 고해같은 인생길에서 위안과 확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비유기는 옛날의 성도들에게 “편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14 : 27)고 말씀하신 그의 아들의 약속에 따라 이들에게 편안을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들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에서 받을 수 있는 복음의 충만함을 내려 주셔서 다가올 영원한 세상에서의 하나님 왕국에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결손과 감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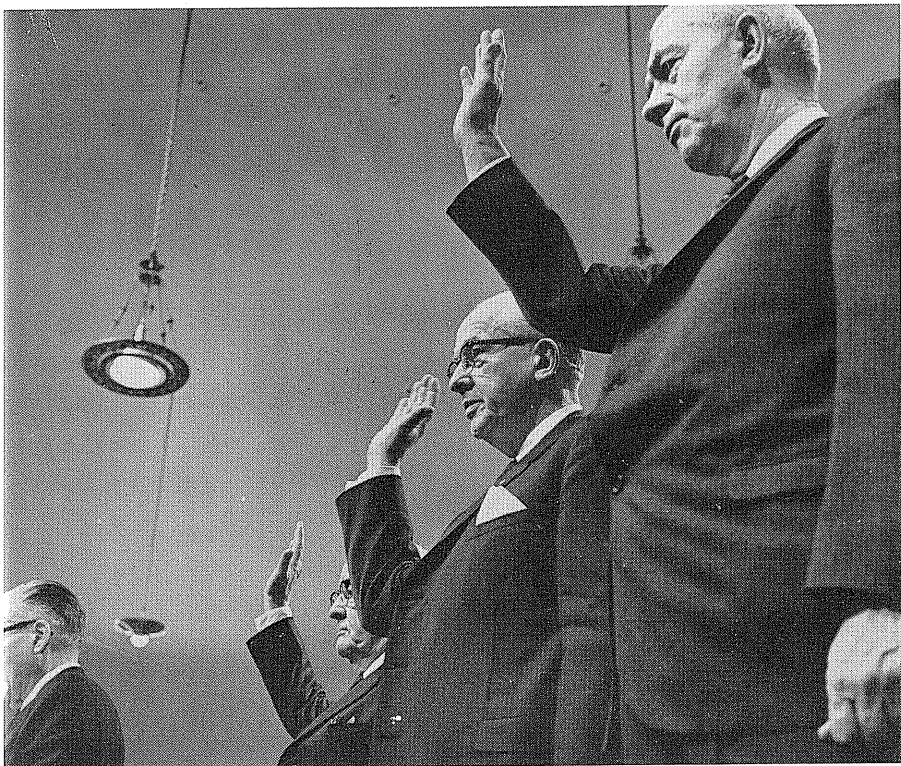
성회

제이 엠. 토드

임프르브먼트 이라 부편집인



대관장단



십이사도 정원회

● 1970년 4월 6일, 교회가 1830년에 조직된 이래 140주년 기념일을 맞는 날에 죠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제10대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요, 대관장으로서 성회의 지지를 받으셨다.

제140차 연차 대회의 오전 10시 총회는 가까운 곳에 있는 스테이크, 와드, 선교부에서 온 대표들이 참석 한 가운데 신전 광장의 태버나클에서 열렸다. 이들은 모여 교회 행정에서 가장 감격적이고 영감과 겸손함을 느끼게 하는 행사인 교회의 새로운 대관장과 대관장단, 십이사도 및 교회 축부사를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로서 성회에서 지지하는 경험을 가졌다.

주님께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성회를 개최하라.” (교성 95:7참조 교성 88:70, 109:6)는 계시를 여러번 주셨다. 이러한 지지 방법은 1880년의 총회에서 존 테일러 대관장을 지지한 이래 사용되어 오고 있다. (교회사 요해, 죠셉 필딩 스미스, 589 페이지) 이와같은 성회의 모임은 약속과 헌신의 시간이며 직접 참석하건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시청하건 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입하심을 확인해 주는 시간인 것이다.

교회 총관리 역원을 지지하는데 있어서 성회가 확인하는 지지 방법은 신권 행정의 주요한 평의회들과 여러 신권 정원회들(태버나클 안에 안는 장소가 각기 지정되어 있음)이 각 제안에 대하여 차례로 모두 일어나 독자적으로 거수 지지하고 그런뒤 회중이 일어나 지지하는 방

식으로 행한다.

실제로 지지 절차에 소요된 시간은 약 35분이었다.

대관장에 대한 지지

1. 대관장단은 일어나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 및 대관장으로서 찬성 지지를 하고 해롤드 비이. 리 부대관장을 대관장단 제1 보좌, 나단 엘돈 테너 부대관장을 대관장단 제2 보좌로 찬성 지지한 뒤 착석.

2. 십이사도회가 일어나 위의 세 가지 제안에 대하여 찬성 지지한 뒤 착석.

3. 교회 축복사와 교회내의 축복사들이 일어나 세 가지 제안에 대하여 찬성 지지를 하고 착석.

4. 십이사도회 보조와 십이사도회 지역 대표를 포함한 교회내의 대제사들과 스테이크 부장과 보좌, 고등 평의원, 관리 감독단 및 와드 감독단이 일어나 세 가지 제안에 대하여 찬성 지지를 하고 착석.

5. 70인 제일 정원회 회장들을 포함한 교회내의 칠십인들이 일어나 세 가지 제안에 대하여 찬성 지지를 하고 착석.

6. 교회내의 장로들이 일어나 세 가지 제안에 대하여 찬성 지지를 하고 착석.

7. 교회내의 소신권 소유자들이 일어나 세 가지 제안에 대하여 찬성 지지를 하고 착석.

8. 앞서 찬성 지지를 한 자들을 포함한 모든 회중이 일어나 세 가지 제안에 대하여 찬성 지지를 하고 착석.

십이사도회 회장, 십이사도회 회장 대리, 십이사도회 회원에 대한 지

지

1. 대관장단이 일어나 해롤드 비이. 리 부대관장을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스펜서 울리 킴볼 사도를 십이사도회 정원회장 대리로서 지지를 하고 스펜서 더블류. 킴볼, 에즈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델버트 엘. 스태플리, 매리온 지. 롬니, 리그랜드 리차즈, 리차드 엘. 이반스, 휴 비. 부라운,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이. 핑크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들을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서 찬성 지지한 뒤 착석.

2. 십이사도 정원회가 일어나 위의 두가지 제안에 대하여 찬성 지지한 뒤 착석. 대관장단의 지지와 같은 방법으로 축복사, 대제사, 칠십인, 장로, 소신권 및 모든 회중이 차례로 이 두 제안에 대하여 찬성 지지를 함.

교회 축복사에 대한 지지

1. 대관장단이 일어나 엘드레드 지. 스미스를 교회 축복사로 찬성

지지한 뒤 착석.

2.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지지와 같은 방법으로 십이사도 정원회, 축복사, 대제사, 칠십인, 장로, 소신권 및 모든 회중이 이 제안에 대하여 찬성 지지를 함.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에 대한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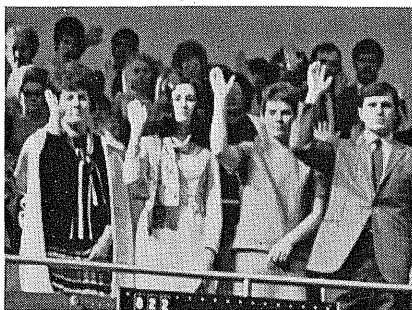
1. 대관장단은 일어나 대관장단의 보좌, 십이사도 및 교회 축복사를 예언자요, 선견자요, 계시자로서 지지를 한 뒤 착석.

2. 이들이 위의 순서에 따라 부름을 받을 때마다 십이사도 정원회, 축복사, 대제사, 칠십인, 장로, 소신권 및 모든 회중이 차례로 이 제안에 대하여 지지를 했다.

이 지지가 있은 후, 각 제안에 대하여 일제히 거수 지지하는 평상시의 방법으로 나머지 모든 회원들의 지지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지지가 끝나고 나서 교회의 다른 일반 총회에서 행하던 방식과 같이 다음의 여러 직분에 대한 지지가 행해졌다. 즉 십이사도회 보조,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을 교회의 재단법인 이사장으로서, 칠십인 제일 정원회, 관리 감독단, 십이사도회 지역 대표, 교회 역사 편찬위원 및 교회 역사 편찬위원 보조와 복지, 가정 복음 교육, 선교사 및 계보 사업에 관한 4개의 본부 신권 위원회 임원, 교회 본부 교육 임원, 교회 재정 위원회 임원, 태버나클 합창단 임원, 상호 부조회, 데저렛 주일 학교 본부, 청남 상호 향사회, 청녀 상호 향사회 및 초등협회의 현재 조직되어 있는 본부 역원과 임원 그 후 교회의 연차 통계 보고 및 교회 재정 위원회의 보고가 낭독되었다. ○



대회에 참석한 일반회원





1969년도 교회통계보고

대관장단은 1969년도말 현재의 교회 회원에 관한 다음과 같은 통계 보고를 발표했다.

스테이크	496
와드	3,910
스테이크 내의 독립 지부	682
스테이크 내의 와드 및 독립 지부의 총계	4,592
선교부 내의 지부	2,016
복음 전도 선교부	88
교회 회원	
스테이크	2,344,635
선교부	462,821
총계	2,807,456
1969년도의 교회 성장	
스테이크 및 선교부에서 축복받은 어린이	62,113
스테이크 및 선교부에서 침례받은 기록된 어린이	54,606
스테이크 및 선교부에서 침례받은 개종자	70,010
사회 통계 (스테이크에서 보낸 1969년도 보고 자료에 기준을 둠)	
천명에 대한 출생율	28.18
천명에 대한 결혼한 수	16.67
천명에 대한 사망율	5.04
아론 신권 소유자	
집사	128,614
교사	91,603
제사	138,571
아론 신권 소유자 총계	358,788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	
장로	233,108
70인	23,204
대제사	78,973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 총계	335,285
아론 신권 및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 총계	694,073
(1년간 33,183명 증가)	

보조 조직	
상호 부조회(회원)	325,042
데저렛 주일학교 본부(평균 참석수)	889,778
청남 상향회(등록 회원)	292,891
청녀 상향회(등록 회원)	366,749
초등학교(등록된 어린이)	464,100

복지 계획	
1년 동안 도움을 받은 인원수	96,429
유보수 취업을 한 인원수	8,814
복지 계획에 동원된 인원의 일한 날 수(매일 8시간)	202,637
동원된 장비의 일한 날 수	7,501

계보 협회	
신전 의식의 수속을 마친 인원수	1,423,502
(1년간 15개국에서 마이크로 필름으로 촬영한 계보 기록은 교회용으로 30.48미터 두루마리의 마이크로 필름으로 208,419개나 이르며 이것은 300 페이지의 책 3백 20만여권에 해당하는 것이다.)	

신 전	
현재 운영하고 있는 13개 신전에서 거행된 의식 의 건수	
산 자를 위해서	55,206
죽은 자를 위해서	7,958,003
의식의 총 건수	8,013,209

교회 교육 제도	
학원 및 세미나리를 포함한 교회 학교에 등록된 누계 인원수	193,155



하나님의 실재성

하워드 더블류. 헌터

십이사도 정원회

●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온갖 아름다움으로 둘러싸여 있어 생은 찬란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아름다움은 산 속에도 있고 숲 속이나 호숫가에도 있습니다. 또 조수가 밀려 오는 바닷가나 양털 구름이 떠가는 하늘에도 아름다움이 있고, 개인날이나 비 오는 날이나 아침이나 낮과 밤에도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모든 자연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 주는 봄의 신선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한여름의 영화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곤 합니다. 침묵의 겨울이 하얀 융단을 덮기 전에 가을은 또 아름다운 색깔의 의상을 입고 옵니다. 이같이 우리가 아름다움을 발견하려고 하면 아름다움은 어디에나 있는 것입니다. 또 우주에는 정확한 질서가 있음을 우리는 의식하고 있습니다. 낮이 가면 밤이 오고 조수는 규칙적으로 밀려오고 나가고 하며, 달의 순환 주기도 일정하고 자연의 순리대로 계절은 번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도 정확한 질서에 따라 운행되며 유성이나 위성들은 그들의 항성에 따라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생물학자들은 동식물의 생명에서 경이와 아름다움을 관찰하고 화학자들은 지구의 원소에 대한 신비를 발견합니다만 여하간 모든 사람들은 과학적인 혼란의 유무에 구애없이 대 우주속의 자연에는 갖가지의 정확한 질서가 얽혀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자연 현상을 관찰하면 반드시 그곳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설계자가 없는 설계가 있을 수 없으며 지은이가 없이 아무것도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틀림없이 우주를 정확한 질서 가운데서 운행하게 하는 안내자가 있습니다. 이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실재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이와 같이 심오하고 영원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수백만명이나 됩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창조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까 하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근본적인 의문을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실재성에 대한 의문이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는 방법은 과학적인 탐구와는 다릅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세계에 관한 주제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에 관한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재성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따라 가야 합니다. 그 길은 위로 향하는 길이고 신앙과 노력을 요하는 길이며, 안이한 길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실재성을 입증하려고 열렬히 노력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안이한 길을 택하여 그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단순히 회의주의자들의 의문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무신론자, 이단자, 자유 사상가, 회의론자, 불가지론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의문에 대한 연구 방법은 역사와 이미 알려진 사실에 대한 고찰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역사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고대 기록의 처음을 살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하시니라”(창 1:1)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지구는 우연에 의해서 생기지도 않았으며 우발적으로 창조된 것도 아니라고 하는 히브리인들의 창조에 대한 믿음에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의미와 일정한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계획적인 창조의 소산인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에 대한 이러한 말을 맹목적으로 받아 들여야 합니까? 이러한 말을 기록한 모세 5경의 기록자는 창조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직접 보지는 않았으나 후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히 11:1)라고 기록한 히브리서의 저자와 똑같이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신앙이란 증거가 지식을 확립하기에 불충분하다 할지라도 참된 것을 바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계속적으로 탐구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훈계를 따르지 않으면 안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물을 두드리라 그

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 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마태복음 7:7-8)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뒤 우리들의 첫째 부모인 아담과 이브와 더불어 에덴 동산에서 대화를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직접 대화를 하셨던 것입니다. 아담은 노아의 아버지에게 이르기까지 8대에 걸쳐 그의 후손들에게 직접 시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노아도 직접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을 하였고 10대에 이르도록 그의 후손들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으며 뿐만 아니라 그 뒤 이삭과 야곱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후손의 지도자가 되었으며 후세대에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지금까지 보존되어 내려오는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과 모세가 직접 교통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역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에 의해 침례 받으셨을 때에 다음과 같은 시현이 있었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마 3:17) 그리고 높은 산에서 변형하실 때에도 이같은 시현이 있었습니다.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 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리어 심히 두려워하니”(마태복음 17:5-6)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나타나신 사실을 신구약 성경에 기록한 것 중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서반구의 경전 속에도 하나님과의 교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역사도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대대로 인간들과 교통을 하셨다는 사실을 들어 하나님의 실재성을 충분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페 역사에만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성에 의한 추리도 이러한 증거를 제시해 줍니다. 고대의 논법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창조물은 창조주가 있다. 지구는 창조되었다. 고로 지구는 창조주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히브리인에게 보낸 서한의 저자는 하나님은 지구의 창조주라는 것을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히 3:4)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운행과 그속의 아름다움과 경이치는 위대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학이 인간을 위해 이러한 모든 일을 행하여 오고 있을지라도 인간을 위하고 그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과학은 가르치고 인간은 다만 배울 따름이다. 배움이란 것은 인간이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하는 개인적인 과정에 불과하며 아무도 그를 위해서 배움을 다시해 줄 수 없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일반적으로 과학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자기를 발견하는 일은 전혀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무신론자의 선언은 아무것도 입증해 주지 못하고 있고, 설사 그가 하나님 아버지는 계시지 않는다고 그대로 믿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 알고 있는 것을 강하게 간증해 주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가 모르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조셀 에프. 메릴, 이전의 십이사도임, 진리의 탐구자와 물문이즘, 104—105페이지)

과학의 기구나 현대의 전자 속에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진리의 탐구자는 만일 그가 결과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는 인식해 하는 이 놀라운 힘의 근원을 간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 예배하려는 충동을 갖고 있습니다. 고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찌니라.”(출20:2—3)고 하셨습니다. 성스러운 역사를 통해서 항상 전해져 온 바 인간은 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예배할 수 없다는 교리 속에는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인간의 생에 있어서 하나의 지고한 충성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한 하나님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

버지에 대한 인식을 갖는다면 우리는 한 세계와 진실로 모두가 형제들이 되는 하나님 안에서 한 인류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하려는 충동을 갖게 합니까? 인간의 영혼 속에는 천성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해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욕기를 보면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충명을 주시나니”(욥 32:8)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욕의 말속에는 인간의 창조에 대한 암시가 나타나 있습니다. 인간은 이 심령에 의해 오성과 이성을 갖게되고 그리하여 성스러운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심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나 그의 존재에 대한 인간의 이성에 의한 추리 이외에 그분에 대한 가장 확실한 지식은 계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태초에서부터 신구약 성경의 전 시대를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먼저는 아담에게요 그후로는 노아에 이르기까지 그의 후손의 족장들에게 나타나셨으며 하나님은 노아와 더불어 말씀하시고 대화도 하셨습니다. 노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역의 때에 이르기까지 여러 선지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께서 침례받으실 때와 변형하실 때에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또 바벨탑을 쌓던 시대에 구세계를 떠나 서반구로 이주한 일단의 백성들의 지도자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기원전 600년경 그분은 리하이에게 말씀하셔서 그의 가족을 데리고 미대륙으로 여행을 떠나라는 지시를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대의 경륜의 시대에 젊은 요셉 스미스에게 직접 나타나셨으며 고로 요셉 스미스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와같이 신뢰를 구성하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이 여러 시대를 걸쳐서 인간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기독교에선 이들 세분을 삼위일체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에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고 성신이 내려 왔다는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은 각기 다른 세분의 인격체이십니다.

우리가 가치있는 것을 얻으려면 그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학자가 성공을 위해 힘써 일하며 노력하지 않는한 박식하게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기꺼이 행하지 않으면서

학자다운 박식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음악가, 수학자, 운동가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의 숙련공들은 그들대로 능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연습하며 어려운 일을 하는데 많은 세월을 소비했던 것입니다. 기껏이 노력은 하지 않는 사람이 음악이나 수학이나 과학이나 체육과 같은 것들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었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힘써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역사를 살펴보아도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고 밝혀주며, 과학 역시 절대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는가하면, 인간의 이성도 하나님의 존재를 납득시켜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인간에게 주신 그분의 계시는 그의 존재에 대한 아무런 의문도 남기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실제성에 대하여 확고한 지식을 가지려면 그는 구세주께서 성역을 베푸시던 때에 말씀하신 계명과 교리대로 생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할인지 알리라”(요 7:16—17)다시 말하면 기꺼운 마음으로 찾으려고 애쓰며 열중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실제성에 관한 지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하여 그분의 길을 깨달을 때에 그는 우주 속에서 우연하게 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만물은 사전에 준비된 성스러운 계획에 의해 만들어 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의 생애야 말로 참으로 의미있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의 이해는 세상의 학문을 능가하는 것이 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은 더욱 아름다워지고 우주의 질서는 더욱 의미심장하게 되며,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날이 오고 가는 것을 보며 계절이 질서있게 바뀌는 것처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온 인류가 하나님을 찾아 그의 길을 따를 수만 있다면 인간의 마음은 그들의 형제들에 대하여 사랑을 갖게 될 것이고, 모든 나라는 평화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분은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예수께서는 그리스도 시요 그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세주가 되심을 알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경륜의 시대에서와 같이 오늘날에도 선지자들에게 그분의 뜻을 계시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참 마음으로 그분을 찾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트맨 렉터 이세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 140차 연차 대회에서 하신 말씀

●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날음 같으니라.”(욥기 14 : 15 : 7)

선지자 욥의 이 말은 인간에게는 달갑게 들리지는 않으나 진실한 말입니다. 이 말은 욥으로 난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생생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베냐민왕은 이에 대한 그의 간증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무릇 욥으로 난 인간은 아담이 타락한 때로부터 하나님의 적이요, 성신이 인도하시는대로 말져 욥으로 된 자기를 버리고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며...”(모사이야서 3 : 19)

이 말은 인간에 대한 강한 간증이 될런지 모릅니다만 역사를 살살이 들추어 보면 그 진실성은 약간의 의문을 남겨 줍니다. 인간이 인간에 대하여 비인도적인 행위를 하는 일은 지금까지 항상 계속되어 왔고 현재에도 그 증거는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타락한 인간성이 악으로부터 선하게 변할 수가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인간의 당면하는 가장 중대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실사 다른 모든 문제와 이를 비교하더라도 이 문제만큼 의미가 심장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이는 “인간성은 변화시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경솔하게 이런 말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거짓된 것입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판장은 1945년 이와는 정반대로 “인간성은 미래에 크게 변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세계는 피로써 멸망할 것입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이웃에 봉사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을 위해 하고 싶은 바를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심일조를 바치고는 싶으나 그 돈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고 싶은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주님의 돈으로 물건을 사고 싶은 생각을 그만둔다면 유혹은 사라질 것입니다. 악한 욕망을 품는 것을 중단하면 그 욕망은 없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악한 욕망을 품음으로써 우리 자신이 계속 혼란에 빠지는 일은 흔히 일어나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영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싶으나 이를 방해하는 어떤 연약함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 우리는 무릎을 꿇고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용서하여 달라는 간구의 방법에 매우 익숙해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연약함이라고 부릅시다만, 왜 있는 그대로 그것들을 말하지 않는지 저는 그 까닭을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인지 우리는 스스로 악과 더불어 사귀고 싶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연약함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상 우리는 연약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을 바라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연약함을 어디에서 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이런 질문을 몇명의 회원에게 제시해 보면 여러분은 서로 엇

갈리는 대답을 듣고 놀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연약함을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렇다면 연약함은 다른 곳에서 오지않은 것입니다. 또 연약함은 유전이나 환경에서 온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경우 우리는 다른 사람 즉 우리의 부모나 이웃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 양자로부터 큰 영향을 받으나 실지로 그들은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지는 않습니다. 더우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하여 악마인 루시퍼를 욱하기도 합니다. 악마는 항상 유혹을 꾀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사탄 역시 우리가 연약함을 얻는 근원은 아닌 것입니다. 진실로 연약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주님은 물론경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기 쉽게 답변해 주십니다.

“만일 사람이 내 앞에 이를진대 내가 저들의 연약함을 보이리라. 내가 사람을 연약하게 하였음은 저들로 결손해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은 내 앞에 결손하게 임하는 자 모두에게는 흠족할지니, 저들이 내 앞에 결손하여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질진대 내가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하리로다.”(이더서 12 : 27)

그러면 우리는 연약함을 어디에서 얻습니까? 바로주님으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결손해지도록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그러나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죄에 대한 책임은 지시지 않고 다만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책임만 지실 뿐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서로 다른 형태의 연약함, 다시 말하면 두 가지의 유혹에서 어느 특정한 유혹에 이끌리게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선지자 리하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어 하늘과 땅의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행하며 행함을 받는 것들을 창조하셨음에,

주께서는 우리 시조를 지으시고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와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신 후 주님의 영원한 목적을 인간의 종말에 이루시려 함에, 지어진 것들의 짝이 있어야 하겠기로 금단의 열매를 짝함에 생명의 나무를 두시었고, 하나는 달게 하시며 다른 것은 쓰게 하셨습니다.

또 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저 스스로 행동하게 하시었음에 사람이 마음에 이끌리지 않고서는 이것이나 저것이나 스스로 행하지 아니하리라.”(니파이서 2: 14-16)

따라서 연약함에 관계되는 모든 것은 우리들의 책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세계의 독립된 원리가 있나니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요, 둘째는 인간의 영이요, 세째는 악마의 영이 그것이다. 인간은 모두 악마에게 대항하려는 힘을 갖고 있다.”(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89페이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우리의 연약함이 들어나면 그 때에 악마는 재빠르게 우리에게 이기적이 되도록 유혹하여 우리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주의를 갖게 하는 주님의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고 만일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여 주를 믿는 신앙을 가질진대 주가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하시리라고 이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진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경전을 보면 이 원리를 생생하게 묘사해 주는 본보기는 이루어야 할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몇가지만 들겠습니다만 물론경에는 엘마와 모사이아의 아들들이 있으며 성경에는 베드로와 바울이 있습니다.

엘마는 처음에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두루 돌아 다녔으나 천사를 만난 뒤 완전히 개심을 하고 물론경의 기록 가운데서는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박해하며 다니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이후로 성경상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고 그가 늘 사용하던 말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 13)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에도 이와 똑같은 진리를 목격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스테이크 선교부 선교부장으로 일하던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교회 회원은 아니나 훌륭한 말일성도 자매와 결혼한 한분의 훌륭한 남자가 선교사들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 분은 교회에 가입하고 싶었지만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담배를 끊으려고 여러 번 시도했으나 도무지 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지로 그는 너무나 몸이 쇠약했습니다.

여섯명의 스테이크 선교사가 일정한 주기를 두어 이 분과 만났습니다만 그에게 담배를 끊는 힘을 주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성령의 영향을 받아 그에게 이 연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함께 금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 보았습니다. 그는 이 제의를 깊이 생각한 후에 받아들일 때는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이를 동안을 금식하자는 제의를 했고 그가 찬성함으로써 금식은 시작되었습니다. 여섯명의 스테이크 선교사와 담배를 끊지 못하는 형제와 그의 부인이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이 끝날 때에 우리는 모두 그의 가정에서 만났으며 거실에서 차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의 요지는 한결 같이 주님께서 이 형제로부터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망을 없애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기도를 드릴 차례가 왔습니다. 그때 그는 일어나서 “이젠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망이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까지 담배를 피우지 않고 지내 왔습니다. 그 후로 그는 워드 감독단으로 봉사해 오고 있으며 지금은 스테이크 상향회 회장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는 충실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었고 주님의 참된 종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문자 그대로 그의 연약한 것을 가장 강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만일 우리가 연약함을 가졌다면 우리는 절망하거나 그것을 경시해서도 안되고 염려해서도 안됩니다. 오히려 이해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뛰어난 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고로 우리는 강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주를 믿는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의 약점은 우리 개성의 최고의 강점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아니라 즉시 축복해 주십니다. 새로운 확신, 비전, 지평선 즉 새로운 탄생은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물론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기

적을 행하는 자격 요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니파이 삼서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록들이 참된 것임을 아나니, 이는 보라 이 기록을 기록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한 의로운 분이었음이고, 온갖 죄로부터 온전히 깨끗하게 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할 자가 없음이라”

고로 자격 요건은 바로 우리가 온갖 죄로부터 온전히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에 저는 “회개에 대한 환성”을 의치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만일 회개가 없다면 아무런 기적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개란 주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회개의 90퍼센트는 주님으로부터 오고 10퍼센트는 인간에게서 오는 것이라고 저절 확신합니다. 니파이는 이에 대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여하히 노력하더라도 다만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구원받게 됨을 앎이라.”(나이 25: 23)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행할 부분은 가장 긴급하고 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첫째 되고 온전하고 또 참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히브리인의 기록은 “위에서 흔들리기 전에 먼저 아래에서 흔들림이 있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먼저 육신을 입은 우리가 회개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들은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는 이로써 알 수 있나니, 보라 회개하는 자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 죄를 버리니라.”(교성 58: 43)

이렇게 될 때에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즉시 축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참으로 사랑이 많으시고 친절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들을 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또한 저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며 그분은 회개를 통하여 그에게로 나오는 자들에게 죄의 용서를 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것과 그분은 또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약점을 강점이 되게 하시려는 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회개의 시간인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



● 물론에 관해서는 그의 말이 증거나 다름이 없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이 한 말은 믿을 수 있습니다. 실사 돈이나 시간이나 수고 등의 개인적인 희생에 관한 약속을 한다 할지라도 물론이 한 말은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와같은 사실은 진실하지 않습니까?

정직은 여러 모양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완전한 하루의 임금을 위해서 완전한 하루의 노동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빈둥빈둥 놀며 일하는 사람, 수고를 다하여 일하지 않는 사람, 분수대 주변의 휴게실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 또는 점심 시간을 15분이나 연장하는 사람들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실하게 일하지 않으면서 고용주로부터 월급을 받는 명단에 끼여 들기는 쉬운 일입니다. 불필요한 사적인 전화를 건다든지 출근을 늦게 한다든지 사무용지나 연필이나 우표를 집에 가져 간다든지 공용 우표로 개인편지를 우송한다든지 하는 일을 들 수가 있습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런 일이 “누구나 그렇게 하는데”라고 변명하며 오늘날 다반사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정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직은 물질적인 것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족 사이에도 반드시 정직이 있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를 남편에게 정직해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정직해야 되며, 부모는 자녀들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은 가족, 친구, 이웃에 대한 충성이며 사람을 신뢰받게 하는 사소한 일들인 것입니다. 또한 정직은 하늘에 계시는 사랑과 친절의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는 기본 원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의 아들을 것처럼 사랑하신 이유의 하나도 그 아들이

신뢰 받을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는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요한복음 10 : 17-18)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사람을 돕도록 주신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과 생활하는 가운데 이 같은 간증을 적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훌륭하겠으며 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를 “내가 행하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제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회원이 이 세상에서 정직하고 신뢰받는 사람들로 헤아림을 받는 것입니다. 회원 중에는 세상에 굴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일요일엔 종교를 가진 척하나 세상 일에 나가면 종교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사업에 예민하고 진실성이 없게 됩니다. 우리는 정직한 사람도 될 수 있고 성공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지로 이기적이고 부정직한 사람보다 더욱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타고날 때부터 정직하거나 부정직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진실로 “정직은 최상의 방책이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부정직의 고통과 근심과 불안울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엘마는 그의 아들 코리엔톤에게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죄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닌 것이니라.” (엘 41 : 10) 고 했습니다. 부정직한 사람은 곧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부정직은 자기 인생을 망칠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 치욕과 불명예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부정직은 또 교회에 속한 회원들에게 수치와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여하간에 우리들 모두는 똑같은 빛으로 검은 먹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소한 일에 부정직하기가 쉽습니다. 한자루의 연필 정도야 집에 가져 가는 것이 부정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교회에는 약 3,500명의 고용인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명이 연필 한자루씩 집어 간다고 하고 연필값을 15원으로 계산하면 5만 3천원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 됩니다. 5만 3천원을 훔치려고 하는 것을 결코 소홀히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직에 대한 한계를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적은 것이었으나 얼마 안되어 큰 것이 되며 우리가 채 인식하기도 전에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는 거짓말은 아주 작은 것일런지 모르나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낳아서 나중에 자신의 명예를 잃을 때까지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이나 도둑으로 낙인이 찍힌 사람은 주의심 없고 경솔한 행동으로 더럽혀진 명예를 다시 찾으려면 오랜 기간동안 회개와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이나 부정직한 것을 배울 수 있다면 왜 정직한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저는 모든 소년들에게 저의 어머니와같은 그러한 어머니가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는 사과를 먹으며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사과를 어디서 얻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대답하기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곧 내가 고달프게 상점에서 “집었다”는 것을 알아내시고는 도로 갖다 놓으라고 이르셨을



정직은 최상의 방책

데오드르 엠 버튼

십이사도 보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40차 연차 대회에서 하신 말씀

니다. 제가 사과를 이미 베어 먹은 것이라고 버티었습니다만 어머니가 완강히 권유하시므로 고달드씨의 상점으로 가서 주인에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사과를 훔쳤다고 말하며 제자리에 놓아 두었습니다. 그러자 고달드씨는 제가 사과를 도로 가져다 놓았다는 것을 전화로 어머니에게 알려 주면서 내가 사과를 집어가는 것을 보았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사과 한개쯤은 신경을 쓸 만큼 대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머니에게는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족 중에 도둑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정직한 사람에게는 한가지 이상한 현상이 따라 다닙니다. 얼마까지 앉아서 그들은 아주 비판적인 사람이 되어 그들의 불의한 행동을 일깨워주는 지도자들에게서 결점을 찾아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개하여 그들의 생활을 개선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지도자들의 결점이나 들추어내어 자기들의 악행을 정당화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왕국의 신비의 열쇠를 하나 주겠습니다. 이 열쇠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존재해 온 영원한 원리입니다. 교회의 잘못을 찾아내려 하고 교회 회원들이 정도를 벗어났다고 하며 자기 스스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려고 일어나는 사람은 자기가 극도로 배도하려는 입장에 있음을 모두가 분명히 알게 되며 만일 그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한 것처럼 그는 배도하게 될 것입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죠셉 필딩 스미스 편, 156-157페이지)

또 다른 하나의 원리는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실 때에 더 이상 그분의 받들어 주심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잊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는 번영으로 우리의 창조주를 잊지 아니하며, 오늘날의 우리가 있도록 해준 정직과 성실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몬경의 위대한 예언자 힐라맨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같이 우리는 인간들의 마음이 얼마나 거칠고 또한 연약하여 변하기 쉬운 것인가를 아나니, 참으로 우리는 주가 그의 끝없이 크신 선하심으로 주를 의지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번영하게 하심을 알며,

주가 그의 백성들을 번영하게 하실 때에는... 오직 주의 백성들의 복리와 행복을 위하여 만사를 행하시나니, 그러하실 때에 백성들은 저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여 저희 주 하나님을 잊으며 거룩하신 이를 발아래 짓밟나니, 이는 오로지 저들이 안이한 때문이요 크게 번영하는 때문이다.

참으로 저들은 교만으로 부풀어 오르기를 속히 하나... 주 저희 하나님을 기억함이 어찌 더더며, 주의 권고에 귀 기울이며 지혜의 길을 좃음이 어찌 그리 더딘고.”(힐라맨서 12:1-2, 5)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걷고 있는가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 우리들의 행동을 살펴봄이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증서나 다름이 없습니까? 또한 우리와 관계하는 사람들과 사소한 것까지도 정직하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설사 우리 말일성도들이 오늘날 같이 야박하고 부정직하게 처신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을 이유로 우리들이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번명을 삼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다시 들

아가는 정직과 성실의 길을 알 수 있도록 의로운 지도자가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신권의 힘은 우리에게 인도하는 능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권을 소유한 자는 마땅히 어떻게 해서든지 정직과 미덕을 갖춘 동량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신권 지도자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11~12절과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인 거짓없는 미덕과 선한 일과 정직한 행실이 속속들이 배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소유하는 왕 같은 이름을 명예롭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조롱과 치욕의 대상이 되게 내버리는 것이 됩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한번 그분을 온 세상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러한 일들이 참됨을 알고 있습니다. 고대의 선지자 앰올레크처럼 만사를 잘 알고 있으나 때때로 우리는 들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와같이 하나님의 길은 좌절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되며 우리가 마음을 강박하게 먹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그분을 실망시켜서는 안됩니다. 그런즉 우리 마음 속으로 깊이 알고 있는 참된 가르침에 순종합시다.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은 참으로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산 아들이심을 기억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성스러우며 그도가 의롭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증드립니다. 아멘. ○

나에게 사랑이 없다면

데오도르 엠. 버튼

십이사도 보조

●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에게 쓰신 편지는 사실 그 당시 회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 모두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이들 회원은 우선으로 뾰족한 정치적이며 세속적인 세상에 살고 있었다. 주위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였다. 그들은 곧 율법을 그 율법의 정신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게끔 되었으며, 인간에게 추구할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학문이요 지식이라고 느끼게 되었다. 또한 복음의 원리나 의식은 그들에게 구원을 확신시켜주는 기계적인 고안에 불과한 것이라고까지 경시하였다. 그들에게는 영적인 사람보다는 세상적인 사람이 더 중요하였던 것이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복음의 참 가치를 환기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쓰셨던 것이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고전 13:1-2)

어떤 면에서는 오늘의 성도는 고대 회람 고린도의 성도와 흡사한 상태에서 살고 있다 하겠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 위선에 싸이게 된다. 사랑이라는 말은 사랑과는 거리가 먼 의미를 지닌 단순한 두 글자로 변질하고 만 것이다. 소위 우리의 사회를 혁신시키겠다는 종교 단체에서 표방하는 사랑은 바울이 말한

그런 사랑과는 다른 것이다. 담장이나 벽에 아무렇게나 쓰여진 사랑이란 말이 바울이 언급한 “사랑”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자비란 사랑의 가장 고귀한 형태이다. 사랑이란 참으로 위대한 것이어서 애정, 배려, 관심을 보임에 있어서 자신의 일부를 기꺼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게 만든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기는 쉽다. 그러나 사랑이 말로만 나타나서는 소용이 없다. 행동으로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사랑이 실제로 증명되지 않는한 고막을 찢을듯이 울려대더라도 진정한 뜻에서는 영혼에 안위를 안겨주지 못하는 소리나는 쟁과리와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므로 참다운 사랑이란 예수께서 지상 생활을 통하여 보여주신 바와 같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양자에 희생을 포함하는 것이다.

어느 비오는 날, 교회 지명을 위하여 교회로 향하던 자매 몇은 그만 바퀴에 바람이 빠져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차를 한쪽으로 세웠다. 날은 곳고 위험했으며 집회 시간은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는 수 없이 내려 뒤 트렁크 문을 열었을 때 반츄력 하나가 와서 밟았다. 약 19살난 청년은 어디가 잘못된 것을 알아차렸는지 그대로 차에 타고 있으라고 이야기하더니 잠깐 동안에 바퀴를 갈아주었다. 하도 감사하여 일불짜리 지폐 두장을 손에 쥐어 주었다. 그랬더니 돈을 트렁크 속에 넣고 문을 닫으면서 “그러시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 젊은이는 사랑의 참다

운 의미를 이해하였던 것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는 받을 보수를 초월할 때 참다운 사랑이라 하겠다. 어느 회사에 비서로 일하는 젊은 여자는 이런 질문을 받았다. “이런 일을 좋아하십니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일하고 돈을 받지 않는가? 그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주일에 닷새를 일하는 대가를 보수로 받는다. 그러나 그녀는 7시 45분에 사무실에 도착하여 상사의 책상에 먼지를 털고 서류를 정리한 다음 자신이 가져온 화초에 물을 주고는 한다. 전화는 명랑하게 받았으며 상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미리 알아 처리하였으며 어떤 힘든 일이나 심부름에도 언제나 준비된 상태였다. 상사가 잘못하여 다시 처야할 편지도 즐거운 마음으로 했으며, 그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15분이나 30분씩 지나는 경우도 많았다. 사무실로 사람을 찾아온 손님에게는 손수 모시고 가서 인사를 나누게 하여 서로가 극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주고는 했다. 그녀는 자기의 직업을 사랑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였던 것이다.

친절을 보수로 정리하였을 때 이는 참다운 사랑이나 자비는 아니다. 현대인은 소년단, 소녀단의 선행을 시대에 뒤떨어진 시대착오라고 조롱하고 있다. 바울은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지적하였다. (고전 13:8) 구식이란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참다

운 사랑과 자비의 정신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봉사는 여러분이 다음 세상에 가지고 갈 수 있는 황금인 것이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어떤 스테이크 부장은 자기 스테이크의 일 처리에 필요한 시간을 빼앗는다는 이유로 큰 보험회사의 지배인 직을 거절하였다. 그는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가? 그런 기회는 다시 없거든가,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런 회생을 요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았다. 결국 그도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위치에서 교회의 이미지를 높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우리도 이렇게 믿고 있는가?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미 바울이 역설한 사랑의 종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가정이나 교회에서 교사로 일하면서 그 직을 자신의 안일 이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사랑의 정신에 물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 직을 수행함에 내적인 괴로움, 짜증, 갈등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의 특권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가르칠 때 여러분은 진정한 자비를 시험하고 있다고 하겠다. 평범한 달성을 위대한 것으로 이끌어 올리는 것은 다름아닌 사랑의 정신이다. 내적 행복의 빛은 옳은 이유를 위하여 옳은 일을 할 때 생긴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결론지었던 것이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전 13:13) ○



용기 있는 사람이 되자

엔 엘돈 테너

부대관장

●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성경 구절에 따라 생활하려고 노력해 왔고 그때로부터 나의 설교나 교회 저서에 그것이 없으면 완전하지 못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 적어도 본인에게 이 말씀은 어느 분야에서거나 성공의 결정적인 요소이며, 누구를 막론하고 이런

고에 따르는 사람은 다른 행동 규범을 준수하는 사람보다 행복하며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품어왔다. 우리는 육체의 상태를 즐기며 하늘에서 아버지와 함께 불사불멸과 영생의 상태에서 살 준비를 갖추기 위하여 지상에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복음과 이 위대한 축복을 얻는데

필요한 조건을 알아야 한다. 복음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에 대하여 배워 알아야 하며,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그분이 마련하여 주신 계명에 순종하여야 한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요, 구속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의 가르침을 인정하며 이에 따라 생활하여야 한다. 그분은 첫째되며 가장 위대한 계명은 온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으며, 둘째는 우리 이웃을 자신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알려주는 바와같이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할 때 그들도 우리가 즐기는 축복을 같이 즐길 수 있기를 바라게 된다. 위대한 축복이 복음에서 오는 이상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복음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데로 집약되어야 한다.

서부 유럽 선교부를 관리하고 있을 때 나는 선교사 이외에도 군인 형제와 사귄 기회를 가졌었다. 서독 베르호스트 가덴에서 대회를 개최했을 때 이들은 부인, 자녀와 함께 참석하여 그 수는 천명을 넘었다. 세계 이곳 저곳에 흩어져 한두 명 또는 십여명이 한 그룹으로 모여 모임을 갖던 그들의 복음이 진실하다는 간증은 실로 고무적인 것이었다. 그러한 간증으로 그들은 모든 반대와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으며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롬 1:16참조) 나는 그들의 간증은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힘이라는 사실을 확신한다.

이 중에 불란서에서 복음 선교사를 마친 군인은 자기가 군인으로서 1년간 침례준 수가 2년반을 선교사로 있으면서 침례준 수 보다 많다는 이야기를 했다.

군의원인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과 같이 지방여행을 했을 때 이 그룹을 안내하던 사람이 정부의 업적을 칭찬하기에 여념이 없어 시간을 얻지 못했었으나 점심 식사를 위하여 일행이 멈추어 섰을 때 이 젊은 군인은 안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기에는 미국 관광객 45명이 모여 있습니다. 서로 다른 교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천주교인, 장로교인, 감리교인 등입니다. 믿고 있는 바가 같지는 않아도 서로 사랑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입니다. 저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들은 인간에게 나타나 지시하여 주시며 기도를 듣고 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는 그곳에 모인 사람에게 요셉 스미스가 어떻게 해서 숲으로 들어가 기도하게 되었으며, 복음은 어떻게 회복되었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의 말을 빌리면 이렇다. “그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으며 저는 그때에 그들이 심판의 날에 ‘전 복음의 회복에 대하여 들은 바가 없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

게 해주고 싶다는 심정뿐이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믿는 신념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그후 어떤 젊은이 하나가 사무실을 찾아왔을 때 군의관은 그의 이름을 물었다고 했다. 성이 스미스라는 소리를 듣자 그는 ‘그럼 요셉 스미스라는 분과 무슨 관계라도 있오?’라고 물었다. 자연 그는 ‘요셉 스미스가 누구데요?’라고 묻게 되었고 군의관은 이 귀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요셉 스미스와 복음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우리가 지닌 확신의 강한 힘을 전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는 용감하여야 했다. 언제나 어느 때나 간증을 나누도록 하자. 복음의 진리성, 하나님의 실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사명에 관한 지식으로 무장하여야 한다.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으며 오늘날 교회의 대장관이신 조셉 필딩 스미스는 주님의 대변자라는 점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그분은 주춧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을 이끌어 나간다는 사실도 밝혀야 한다.

우리가 그분의 지시에 따르고 사랑과 단합으로 함께 일할 때 왕국은 성장할 것이며 경전이 예언한대로 하나님의 왕국이 모든 땅을 채울 것이다. 우리가 왕국 건설에 협조한다는 말은 그의 일원으로서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뜻을 명심하여야 한다. ○



너무어려 학교 못간 태일이

케드린 시이. 필립스

그림 주디 카페너

● 태일은 기분이 대단히 우울해져 계단에 앉아 있었다. 이날은 학교가 시작하는 첫날이어서 그의 친구들은 모두 학교엘 가고 태일이 혼자만 집에 남아 있었다.

“넌 아직 너무 어려서 학교에 갈 수 없어.”라고 작은 형이 말했다.

“너는 내년에는 학교에 갈 수 있어.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 어려워.”라고 제일 큰형이 옆에서 다시 한번

말했다. 그리고나서 그들은 태일이만 남겨두고 학교로 가버렸다. 그는 학교에 가면 참 재미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제 동네에서는 별로 할 일이 없었다. 그는 학교엘 가기에는 너무 어렵고 중요한 일을 하기도 너무 어렵다.

태일은 일어났다. 그리고는 “저쪽 길모퉁이로 산보를 갔다 오겠어요.”라고 어머니에게 큰소리로 말씀드렸다.

“그래. 그렇지만 길을 건너가서는 안된다.”라고 어머니께서 대답하셨다.

“네, 안가요.”라고 말하는 태일이는 또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 “너는 너무 어려”라는 말이 나올 것이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는 큰길가를 따라 천천히 걸어 내려갔다. 동네가 모두 조용한 것같이 보였는데 영식이네 집 앞을 지날 때 영식이네 새로 산 강아지 “해피”가 태일이를 보고 울타리를 넘어 오면서 반갑다는듯이 꼬리를 흔들며 짖어댔다.

“해피.”하고 태일이가 불렀다.

영식이 어머니께서 모퉁이를 돌아 나오시다가 “오! 태일이구나. 너 들어와서 해피하고 잠깐만 놀련? 해피는 오늘 다른 아이들이 다 학교엘 가서 심심해 야단이란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태일이는 마당으로 들어가서 공이 달린 막대기를 가지고 해피에게 뛰어가 물어오기를 시켰다. 강아지가 지쳐 양지바른 곳으로 가서 낮잠을 즐길 때까지 같이 놀아주었다.

영식이 어머니는 태일이가 대문으로 나가는 것을 보시고는 “태일아 나는 네가 아직 학교에 갈 만큼 큰 아이가 아니라서 기쁘단다. 오늘 아침 해피는 같이 놀 사람이 필요했어.”라고 말씀하셨다.

태일이가 정순이네 집을 지나갈 때 정순이 어머니가 빨래를 뒷마당에 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그집 아기가 유모차에 앉아 있으면서 발걸질을 하고 손을 흔들며 큰소리를 내고 있었다. 태일이는 그 아기가 웃고 있는건지 울고 있는건지 알 수가 없어서 그집 뒷마당으로 가서 살펴보았다. 인형이 땅에 떨어져 있었다. 태일이는 그것을 집어서 아기의 손에 쥐어 주었다. 아가는 울음을 툇 그치고 태일이를 쳐다 보며 방긋 웃었다. 정순이 어머니께서도 웃으시며 “저런, 태일이가 우리 아가의 울음을 그치게 했구나. 그애는 장난감을 집어 던지면 누가 집어 주어야 하는데 나는 빨래를 널어야 하거든.”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태일이는 그곳에서 인형과 딸랑딸랑하는 장

난감을 아기가 던지는 대로 재빨리 다시 집어 주었다. 이것은 참으로 재미있는 놀이였다. 정순이 어머니는 빨래 널기를 다 끝내셨다.

“고마워 태일아.”라고 하시며 “우리 아가는 친구들이 학교엘 가서 쓸쓸해 하던 참이었던단다. 나는 네가 아직 학교에 가지 않아서 기쁘다. 다시와서 우리 아가하고 같이 놀아 주기를 바란다.”하고 말씀하셨다.

길모퉁이는 창수네 집이었다. 태일이는 길모퉁이를 돌아 다시 올라가려고 했다. 그런데 누가 “태일아, 태일아”하고 부르는 소리가 나서 그 자리에 섰다. 창수 어머니가 문에서 계셨다 “태일아, 너의 어머니께서 오늘 이 새로운 과자 만드는 법이 적힌 책을 달라고 하셨다. 이것을 어머니께 갖다 드릴 수 있겠니?”라고 물어 보셨다.

태일이가 그 책을 받을 때 창수 어머니께서 “우리 동네에서 심부름을 해 주고 이웃 집 일을 도와 줄 수 있는 소년이 한사람 남아 있어서 참 좋구나. 태일아, 네가 아직 학교에 갈 수 있을 정도로 크지 않은 것이 참 잘 된 것 같구나”라고 말하셨다.

태일이는 창수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아침 늦게 그는 다시 계단에 앉아서 조금 더 이 일에 대하여 생각했다. 그는 학교에 가기에 너무 어렸다. 그러나 자기만한 아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해피가 심심해 하는 것을 즐겁게 해주었고, 정순이네 아가를 돌보아 주었고, 창수 어머니를 위해 책을 전달해 주었다. 여기까지 생각해 본 그는 과자를 굽는 구수한 냄새를 맡게 되자 한가지를 더 생각해 내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도와 드리려고 여기 남아 있어서 기쁘시지요?”라고 큰소리로 물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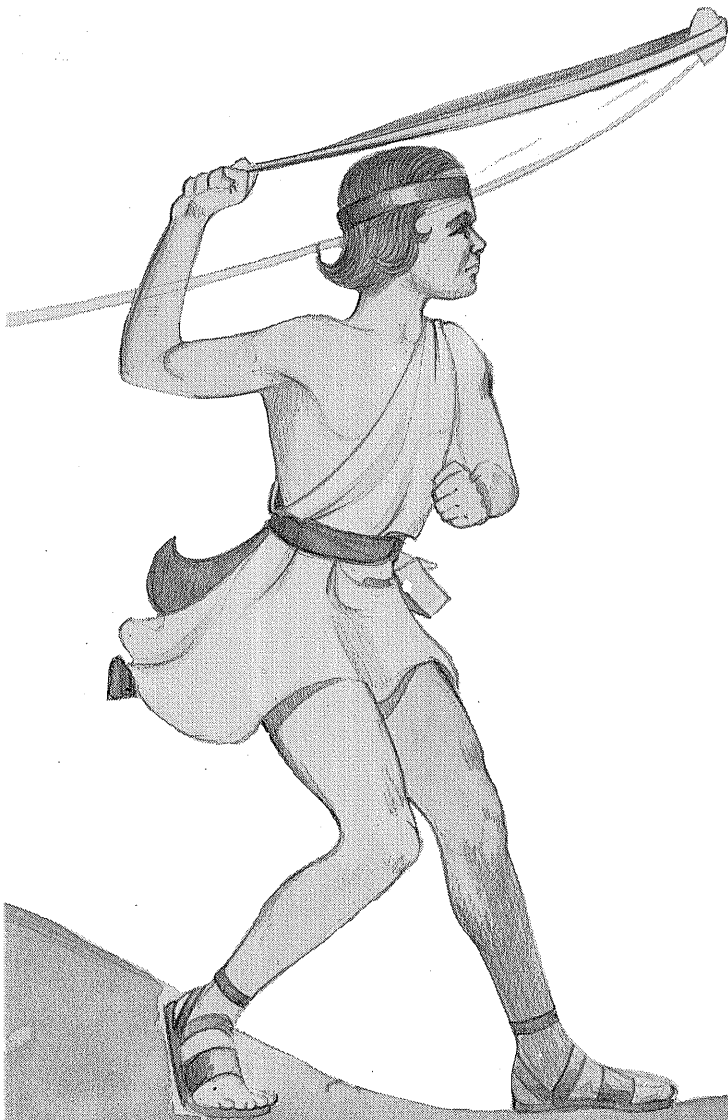
“물론” 이라고 대답하시면서 “지금 나 좀 도와 주겠니?”라고 물어 보셨다.

“네”하면서 벌떡 일어서서는 “바로 지금 저는 어머니께서 새로운 과자를 만드시는데 무언가 도와 드릴 것이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라고 말했다. ○

양치는 소년

다윗

도로시오. 바커



● 다윗은 그의 조용한 목자의 생활을 좋아했습니다. 이런 조용한 생활을 오래하는 동안 그는 깊은 사색을 할 수 있었으며 음악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프도 잘 쳤고 노래도 잘 불렀습니다. 그는 양들이 그의 옆에 모여 한가하게 풀을 뜯으며 음매 하고 우는 소리를 들으며 평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예언자 사무엘이 그에게 와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축복해 준 이후, 다윗의 생각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짝 차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에게 정말 가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타오르는 태양, 휘몰아치는 바람, 움직일 줄 모르는 산, 이와같은 모든 것들이 사랑의 아버지로서 그의 백성들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불변하심과 전능하심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궁전의 중 한사람이 와서 급히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다윗은 하프를 가지고 병이나서 불행한 나날을 보내고 있으나 좋은 음악을 들으면 악귀를 쫓아 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울왕에게로 불러 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평강히 고민을 하고 있는 왕 앞에 나가게 되자 긴장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만 왕이 참으로 수척하고 우울하게 보여 동정이 갔습니다. 다윗은 하프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있는 곳의 하늘과 언덕과 울창한 숲과 나무 그리고 아기양들의 재롱을 노래로 불렀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이 왕의 슬픈 마음을 위로해 준 보람이 있어 왕은 병이 나아 자기의 군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쪽 언덕에 진을치고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건너편 언덕에 진을 쳤습니다. 그 사이 골짜기로 작은 냇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양쪽 군대는 싸움을 시작할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블레셋 사람들은 완전히 무장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키가 큰 대장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언덕 위에 나와서 골짜기 건너로 소리를 잘렸습니다. “너희는 한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사무엘상 17:8-9)

이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편에서는 겁만 내고 떨고 있을뿐 나가서 블레셋의 거인과 싸울 수 있을만큼 용감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느날 아침 다윗은 그의 형들을 보러 이스라엘군이 있는 천막에 왔습니다. 그는 골짜기를 울려 나오는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그의 형들에게 누가 저 도

천하는 소리에 대답하여 나가려고 하느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겁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즉시 왕의 천막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이 양치는 젊은이를 보자 조용히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은 사울왕에게 자기가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 간적이 여러번 있다고 하면서 그때에 자기가 쫓아가서 새끼를 구해왔고 사자가 자기를 해치려고 하면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 상 17 : 33—37)라고 왕이 말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주는 그의 투구와 갑옷과 칼이 자기에게는 너무 무거워서 사양했습니다. 그는 무장도 하지 않고 단지 목자의 물매와 매끄러운 돌 다섯개만 개울에서 주어 가지고 골리앗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다윗은 맨몸으로 거인을 만나러 나간 것입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편에서 양치는 소년만 보낸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라고 소리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라고 다윗이 외치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은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 상 17 : 43—46)

그리고는 다윗은 두려움 없이 그 장사에게로 뛰어갔습니다. 그는 작은 돌 하나를 물매에다 넣어가지고 기술적으로 블레셋 사람에게 던졌고 이 돌이 그의 이마에 맞아 깊이 박혔습니다. 골리앗은 궁하고 땅에 쓰러졌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그들의 대장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자 서로 무서워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천막을 그대로 두고 자기 나라로 도망쳤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양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해 달라고 하는 그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왕은 다윗에게 군대에서 높은 지위를 주었고, 모든 사람들은 그를 칭찬하고 사랑하며 그에대한 노래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



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것이 아닌가!

십일조를 바친다는 것은 하나의 예배 형태이다. 한 사람이 자기에 대한 주님의 사랑의 크기를 깨닫게 될 때 그는 개인적으로 그를 좀더 완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강한 욕망을 갖게 된다. 십일조는 이 욕망의 자연적인 대답이다. 지금 우리는 주님을 위해 우리의 일생을 바치라는 요구를 받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는 십일조의 형태로 우리 생의 일부를 희생하여 얻은 산물을 그에게 바칠 수 있다.

고 스테픈 엘. 리차드 부대관장님은 그의 십일조의 법이라는 책에서 “십일조를 내는 사람은 누구나다 이를 즐거워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기쁨의 복음이다. ‘인간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다’ (니파이서 2:25) 자기의 십일조를 기뻐하는 마음을 갖고 내지 않을 때는 그의 축복의 한부분을 흠치는 것이다. 그는 쾌히 그리고 기쁘게 즐겁게 바치는 것을 배워야 하고 그렇게 하면 그의 헌금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좀더 많은 기쁨을 얻기 위하여는 좀더 자주 내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계속하여 내게 될 때 우리는 기쁨을 증가시키고 높일 뿐 아니라 이것을 연습하게 된다. 돈이 손에 들어올 때 십일조를 내라고 나는 진심으로 권할 수 있으니 이는 십일조를 내기 용이하다는 이유뿐이 아니라, 보다 더 큰 이익이 찾아오기 때문인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생을 이 교회와 하나님 뜻의 퍼는데 바친다. ‘헌물을 바치는 자는 자신과 배곯은 자기의 이웃과 나, 즉 셋을 먹이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십일조의 법은 복음의 척도이다. 이것은 진정한 예배이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참다운 인식인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생활을 하는데 힘과 체력을 주는 것이며 이것은 풍성한 사랑의 생을 주는 것이 될 것이다. ○



● 얼마전 저는 패커 자매와 함께 “젊은이의 중대한 관심—종교”라는 주제로 여러날 동안 회의를 하고 막을 내리려 하는 뉴햄프셔의 “여성 연합회”의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러 간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로 개종한 버스웰 자매가 이 순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음악순서에서 독창을 하도록 초청되었습니다. 어려운 곡이 그의 잘 훈련된 콘트라alto의 소리로 은은하게 울려나왔습니다. 그녀는 우리 교회의 회원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들 앞에서 “저희 교회의 어린이들은 노래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그 어린이들과 어른이 즐겨 부르는 노래를 들어 보시지 않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린이들이 매우 좋아하는 노래를 마지막 절까지 경건하게 불렀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소리가 홀 안을 울려퍼지자 성령과 따스한 마음이 홀 안으로 메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영감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른곡 즉, 참석한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과시하기에 알맞는 곡을 택해서 부를 수도 있었습니다. 음악 지휘자들은 예배중에 음악을 자주 연주하게 하여 음악을 향상시키고 발전시켜야 할 책임을 느껴서인지 음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복음의 영을 지니지 않고 자신의 실력만을 과시하려는듯 세속적이고 편파적인 것들을 고르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음악은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의 예배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저를 음악에 대한 문의한으로 말할 것입니다. 이점에 대하여는 저도 마찬가지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는 어느때 주님의 영이 나타나는가를 압니다. 세상적인 말이 아무리 훌륭하게 전해졌다고 해도 주님의 영을 불러 일으키지 못하는 것과 같이 이러한 음악이 위엄있게 잘 연주되었다고 쉽사리 주님의 영이 임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버스웰 자매가 불렀던 단순한 어린이 찬송가의 신선함과 경건함이 영감을 불러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하나를 더 불렀습니다. “오 높은 영광 보좌”(찬송가 138장)를 부른 다음 영국 물문들이 좋아하는 찬송가 “시은 청년 지체하라?”(찬송가 146장)을 열편 어조로 불렀습니다. 그 찬송가는 완강히 “아니오”라고 울려 퍼졌습니다.

물론 젊은이들 중에는 지체하고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리하이의 시험에서 쇠막대의 인도로 목적지를 향하여 따라가던 사람들이 커다란 시험 속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에 주의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수가 많습니다. 니파이의 말을 주의하여 들어 봅시다.

“...나는 또한 내 옆에 서있는 나무쪽으로 강둑을 따라 빨려진 쇠막대 하나를 보았으며.....

...나는 또한 무수한 사람들의 무리를 보았으니, 저들 가운데 여럿이 내가 서있는 곳에 있는 나무에 이르는 길을 찾고자 앞으로 밀려 나오더라.

십 일 조

존 에이치, 벤덴버그 감독

●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유를 알고자 하고 있다. 왜라고 하는 이 알고자 하는 욕구가 적절히 사용된다면 위대한 인격 형성의 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옳바른 일을 하는 데는 정당한 이유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데이비드 오. 벅케이 대관장께서는 다음과 같이 충고해 주셨다.

십일조는 이기적인 생각을 품고 내주어서는 안된다. 자기의 이름을 기록에 남기기 위하여 십일조를 내는 사람은 물론 이름이 기록에 남게 될 것이다. 남에게 들으라고 또는 보이려고 기도한 사람과 같이 “저희는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태 6:2, 5, 16 참조) 그러나 남을 도와주기를 좋아하며, 좀더 의로운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마음 속에 감사함을 품고 기쁜 마음으로 그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생을 잃어버리는 가운데 그는 이것을 발견할 것이다.

일반적인 이야기이지만 사람들은 자기의 수입을 나누어 주기를 주저한다. 이것은 대개 인간은 자신과 가족들을 위하여 그의 생의 대부분을 소비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해를 할만하다.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한 젊은 남자나 여자들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는 사실에 놀란다.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기부를 할 때 이것은 자기 자신의 일부를 주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절감할 것이다.

진정한 우리의 일부를 바치는 것, 즉 우리의 무한한 노력의 결정으로

얻어진 것을 바치는 것 이외에 어떻게 더 훌륭한 사랑을 주님과 교회에 보일 수 있겠는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훌륭한 하고 상받을만한 일인 것이다.

우리가 수입의 10퍼센트로 내는 십일조는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는데 도움이 위하여 내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스러운 의식을 집행하는 예배당과 신전을 건축하는 십일조이다. 이것은 선교사업을 마친 선교사들을 집으로 데려다 주는 십일조이다. 이것은 대학교, 전문학교, 종교기관과 세미나 등과 같은 교회의 교육사업을 돕는 십일조이다.

또한 십일조를 냄으로써 우리들의 십일조가 그러한 값진 봉사 활동을 돕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축복 이외에도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얻게 되는 영적인 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그의 축복을 필요로 하는 것만큼 우리의 돈을 필요로 하시지는 않는다.

십일조를 지불한다는 것은 오늘날 결핍되고 있는 겸손의 덕을 얻는데 훌륭한 도움이 된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그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돕고 싶기 때문이라는 옳바른 이유로 십일조를 낸다면 우리는 곧 바로 겸손의 계단을 걸어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십일조를 낸다면 역시 오늘날 결핍되어 있는 비이기적이라고 하는 좋은 성품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망서리게 될 때 관대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은 항상 주님께 이로우심을 준다. 지난날에는 가끔 십일조를 물품으로 바쳤는데 이것이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 자주 의문을 일

키는 문제가 되었다. 자기 아들에게 가장 좋은 전초 10분의 1을 십일조로 감독의 창고에 갖다 주라고 하여 십일조의 법을 아들에게 가르쳤다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전초를 거두고 자르고 묶어 저장하는 것을 도와준 아들이 반대하여 “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가져 가야 합니까, 왜 그냥 나오는대로 갖다주면 안 됩니까?”라고 말했다.

그 아버지는 더 이상의 불평을 막고 “내가 너의 어머니와 같이 자녀들을 보내 달라고 기도할 때 가장 좋은 아이들을 보내 달라고 주님께 부탁을 드렸고 또 주께서는 그렇게 보내 주셨다.”라고 대답했다.

돈을 써야 할 때는 많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를 배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다. 모든 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십일조를 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결코 십일조를 내지 못하고 만다. 누군가가 “아무도 십일조를 낼 만큼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진정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십일조를 낼만한 신앙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인 것이다.

십일조는 금식과 마찬가지로 자제력을 발전시키는데 관계가 있는 것이다.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식욕을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대개 자기의 이기심을 기쁜 마음으로 십일조를 바침으로 잘 억제할 수 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 원인은 무엇 이전 결코 거절을 당한 일이 없다는 것이라는 사실이 경험으로 밝혀지고 있다. 약 때문에 자기의 일생을 파멸로 이끈 한 젊은이가 자기의 부모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다 주었다고 부르짖었다. 이것은 젊은이들에게 강인한 정신과 육체는 자제를 하므로 얻어진다는 것과 행복은 개인의 노력과 희생 생활을 통하여 얻어진다고 하는 교훈

성령은 유창하게 말하게 한다

보이드 케이. 패커

(십이사도 정원회)

“나는 또한 다른 무리가 앞으로 내달
아움을 보았으니, 저들은 쇠막대 끝을
잡고 나아와 어둠의 안개를 지나도록
쇠막대에 매달려 의지하더니, 결국 앞
에 나아와 나무의 열매를 따먹더라.

저들이 나무 열매를 따먹자 부끄러운
듯 눈을 들어 살피는지라

나도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보니 강
물 건너편에 크고 넓은 건물이 하늘을
찌를듯 땅에 우뚝 서있는 것을 보게 되
니라.

그 건물 안에는 늙은이와 젊은이 남자와
여자들이로 꽉차 있었으며 저들의 옷
차림은 값진 것이었더라. 저들은 마치
강 이편에 이르러 열매를 따먹는 자들
을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는 형상이더라.

열매를 따먹는 자들이 저들을 조롱하
는 자들로 인하여 열매를 따먹은 다음부
끄러워 하며, 금단의 길로 떨어져 들어
가더라.”(니파이일서 8:19—21, 24—28)

시험은 그들이 쇠막대를 따라간 후에
그리고 열매를 따먹은 후에 왔다는 사
실에 유의 하십시오. (이 상징에 대한
설명은 니파이일서 11장에 나옵니다)

시험이란 무엇입니까? 그들은 왜 지
체했습니까? 이는 부끄러워 하게 되는
것과 조롱과 업신여김과 손가락질 당하
는 것들과 관계가 있었읍니다.

어떻게 하면 지체하지 않을 수 있습니
까?

첫째번으로 개인적인 문제지만 어려
움이 다가올 때 빨리 이것을 알아야 합
니다. 시온의 청년들이 지체하지 않는
다면 여러분도 지체하지 않을 것입니
다.

여러분들은 만일 잘못 생각해서 오늘
날의 존스톤의 부대¹가 교회를 위협한다
면 신앙의 수호자로서 자원 입대하여
에코계곡²으로 달려갈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유혹이 교회에 대항하는 군
대처럼 한꺼번에 밀려 온다고 생각할런
지 모르나. 사탄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간증에 서서히 침투합니다.

저의 박사학위 과정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 저는 다른 세 사람과 함께 철학과
에 등록되었습니다. 그중 두 사람은 학
위 과정이 다 끝났고, 나머지 두 사람은
이제 막 시작하는 과정이었읍니다.

그반에서 공부하던 중 나와 다른 박
사학위 후보자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읍
니다. 교수는 두 사람중에 어느편도 들
지 않고 아주 숨씨있게 그 다툼을 중재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토론은 나머지
두 사람이 각각 한 사람씩 다른 편에
가당함으로 더욱 격렬해졌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두 사람을 상대
로하는 논쟁자가 되었읍니다. 이 논쟁은
점점 심각하게 되었고, 매일 나는 실망
한 사람보다 더 참담한 기분으로 교실을
떠났읍니다. “왜 이것이 나를 괴롭히는
가? 내가 옳고 그 사람이 그르다. 그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
도 이것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걱정하게 만드는 것
이었다. 그러나 그는 토론할 때마다 나
를 중지하에 몰아 넣을 수가 있었읍니다.

1. 존스톤의 부대는 미국의 부처맨 대통령이
1858년 물문에 대항하여 보낸 군대 (아메리카나 매
백과사전 제9권 544페이지)

2. 에코계곡: 솔트레이크의 북동쪽에 있는 계곡
으로 그 당시 방어본부가 있던 곳.

이리하여 매일 점점 나는 부족하고 어
리석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
고 항복하고 싶은 생각마저 들기 시작했
읍니다.

그런데 내 생애의 전 교육과정을 통
하여 가장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된 사건
이 일어났읍니다. 어느날 우리가 교실을
떠날 때 두번째로 상대편이 된 사람이
“당신이 졌지요. 그렇지 않아요?”라고
말했읍니다.

그 명백한 사실을 거부할만한 자존심
도 이젠 없었읍니다. “네 제가 졌읍니
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라고 그가 물
었읍니다.

저는 궁급해서 “정말 알고 싶읍니
다.”라고 대답했읍니다.

“문제는 당신이 이론적인 것에만 치
우쳤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 보았
읍니다. 그 역시 이것을 설명할 수는
없었읍니다. 단지 그는 “당신은 이론적
인 것에만 치우쳤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할 뿐이었읍니다.

그날밤 나는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
하여 생각했읍니다. 이것은 체면이나 실
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것이었습니다. 참된 원리를 지키려는
나의 노력이 굴욕과 창피를 당하게 되
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이론적인 것에
만 치우쳤다는 것입니다”라고 한 그의
말이 가슴에 맺혀 있었읍니다. 드디어
나는 부끄러움을 무릎쓰고 주님께 기도
를 드렸읍니다. 그리고 나는 알게 되었
읍니다.

다음날 우리는 다시 교실에 모였을 때 저는 전체적으로 문맥이 맞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토론이 다시 시작되자 제가 철학 술어에 정통하고 책을 많이 읽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과장되고 궤변적이며 철학적인 말 즉 “마치 빛의 외적인 근원과도 흡사한 예지 이전의 취득은”이라 말하지 않고 간단한 이론을 전개한 다음 “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안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패배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쉽게 잃어버릴 수 없는 교훈을 하나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가혹한 비평을 했지만 그로 인하여 많은 것을 배우게 된 저는 그 학생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여, 배우고 구하고 그리하여 성장하십시오. 앞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탁월한 존재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종교적 신념을 말할 때 머뭇거리지 말고 확실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나 복음에 대하여 토론할 때는 이론에 맞게 설명해야 합니다.

확실히 여러분은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모든 사람에게 다 설득시킬 수는 없습니다. 설득한다는 것이 무의미하게 된 때가 언제인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확연히 자신의 생각을 알려 줄 수 있을 것이며 그러므로 그들은 복음에 대하여 알게 되어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닌가를 자신이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 회개, 침례를 가르치십시오. 대학교에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과정을 밟지 않고 상급반 화학과에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대학원에 등록을 하려면 대학교를 완전히 이수해야 합니다.

필수적인 과정이나 이와 동등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상급반을 택한다면 기초가 없어 따라가지 못하고 도중에 좌절되고 말 것입니다. 기초적인 원리에 대한 지식이나 훈련이 없다면 원리나 훈련에 관련된 사실이 나온다 하더라도 잘 몰라서 오해하거나 더 나가서 반대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에도 필요 불가결한 과정이 있어 복음의 원리들에 관한 깊은 뜻을 모른다면 사실상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신권 부여의 한계에 관한 것은 만일 필수적인 과정인 신앙, 회개, 침례 그리고 성신의 안수를 받음에 대한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받아들여지지도 않으며 이해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동의하지 않거나, 설사 지식인이나 선의를 가진 사람이 경원한다고 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복음을 그들의 용어나 그들의 문장으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는 반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 전부 충실하거나 인기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도전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모로나이 자신도 진리를 가르치는데 머뭇거리고 약해진 자신을 보고 슬퍼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내가 주께 고하여... 혹 이방인들이 우리의 언어를 조롱하거나 앓을지 두렵사옵나이다.

내가 이같이 고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어리석은 자들이 조롱할 것이나 저희가 애통해 하리로다. 나의 사랑이 온유한 자들에게는 흡족할 것이요 저들은 너희의 연약함을 타하지 아니하리로다.

만일 사람이 내 앞에 이를 진대 내가 저들의 연약함을 보이리라. 내가 사랑을 연약하게 하였음은 저들로 겸손하게 하려함이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은 내 앞에 겸손하게 임하는 자 모두에게는 흡족할지니, 저들이 내 앞에 겸손하여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질진대 내가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하리로다.

보라 내가 이방인들에게 저들의 연약함을 보일 것이요, 신앙, 소망, 사랑, 이 모든 의의 근원인 내게로 이르게 함을 저들에게 보이리라.” (이디 : 12 : 25—28)

이 교회에서는 적절한 순간에 복음의 편에 머무를 수 있을 영감을 가졌던 버스웰 자매와 같은 분을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세상의 어떤 분야의 전문가와 대응하게 전문적 술어를 써가며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수 없다 하더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로마서 1 : 16)는 말처럼 복음의 편에 머무를 사람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

겨우 선생이야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정원회

● 우리는 자주 “세상은 변한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기도 합니다. 우리 세대는 의약, 교통, 통신, 탐색의 분야에서 거대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광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항구불변의 고립된 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소년은 어디까지나 소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어린 아이같은 자립을 합니다.

얼마전 저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려주는, 늘 머리 속에서 되풀이 생각되었던 대화를 무심결에 들었습니다. 아주 어린 세 소년이 자기 아버지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 아버지는 너의 아버지보다 높다”라고 말하니, 다른 아이가 “그래, 우리 아버지는 너의 아버지보다 똑똑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세번째 아이는 이에 지지않고 “우리 아버지는 박사란 말이야”라며 한 소년을 앞잡아 보며 “그런데 너의 아버지는 선생이지?”라고 말했습니다.

그중 한 아이의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에 이 이야기는 중단되었지만 그러나 그말은 나의 뇌리에서 돌며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겨우 선생이야. 겨우 선생이야.” 그러나 저는 머지 않은 장래에 이 작은 소년들이 영감적인 교사들의 참가치에 대하여 감사하게 될 것이며 그러한 교사들이 자기들의 일생에 지울 수 없는 깊은 교훈을 남겨 준 것을 진정으로 고마워 할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헨리 부룩 아담스의 관찰에 의하면 “교사는 영원히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다. 결코 그의 영향은 중단된다고 말할

수 없다.” 이 진리는 우리 모든 교사에게, 즉 제일 먼저 가정에서의 교사, 두번째로 학교에서의 교사, 세번째로 교회에서의 교사에게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과 제가 가장 잘 기억할 수 있는 교사는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교사일 것입니다. 그녀는 흑판을 사용하지 않았고 대학 졸업장을 갖고 있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교훈은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며 그의 정성은 한이 없었습니다. 네, 저는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는 아버지도 포함하여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부모는 다 교사입니다.

성스럽게 허가된 이러한 교사의 교실 안으로,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이나 저의 가정으로 오는 어린 아이들은 인류의 신선한 꽃이며 하나님 자신의 집으로부터 지상에서 피기 위하여 내려온 향기로운 꽃입니다.

가르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적당한 시기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기회는 지나가 버리기 쉽습니다. 교사로서의 책임수행을 게을리 하는 부모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하지 말 것을”하는 후회를 되풀이 하게 되는 피로운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교사로서의 사명을 이행하기 위하여 부모는 반드시 영감의 도움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세상에서 가장 강한 감정의 결합은 신비한 우주의 조화나 소설이나 역사책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오직 자고 있는 어린아이를 지켜보고 있는 부모에게서 찾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부모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

느니라.”(창세기 1 : 27참조)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성경 말씀은 부모들이 이 경험을 되풀이 할 때 새롭고 가슴을 울려주는 참뜻을 얻게 해 줍니다. 가정은 하늘 나라의 향구가 되고 사랑하는 부모들은 그곳에서 자기 자녀들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 가르쳐야 하느니라.”(고리와 성약 68 : 28) “겨우 선생이야”라고 표현하기에 알맞는 부모가 되지 마십시오.

다음에는 학교에서의 교사에 대하여 생각하여 봅시다. 필연적으로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의 일부를 학교 교실에서도 눈물을 머금고 양보를 해야 하는 아침이 찾아옵니다. 영이와 철수는 대문 앞에서 학교로 향하는 행복한 부모와 함께 어울립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교사들을 만나게 되는 곳입니다.

그 교사들은 자기 생도들의 목표와 희망을 구체화시켜 줄 뿐 아니라, 그들 자신과 미래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만일 그 교사가 미숙한 사람이라면 젊은이들의 생활에 상처를 남겨주며, 그들의 자존심을 꺾어버릴 것이며, 인간으로서의 그들의 영상을 위축시켜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학생들을 사랑하고 많은 기대를 그들에게 걸면, 학생들은 자기를 믿는 태도가 성장하며 그들의 능력이 발전하고 그들의 앞날이 보장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선한 생활로 인도하는 다리를 놓아주기 보다는 신앙을 파괴하는 것을 좋아하는 교사들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선도해 주는 힘도 있지만 우리를 잘못 이끌어 주는 힘도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파멸로 인도하는 힘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제이 루벤 클라크 2세 부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즉 “신앙을 파괴하거나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영을 상하게 하고 병신을 만들며 불구자가 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엄밀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 누가 고의로 다른 사람이 해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한 사람이 떨어질 지옥의 깊이를 측량할 수 있겠는가?’”(불명과 영생 제2권 128페이지)

우리가 학교 교실에서 그들의 일을 조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학생들을 준비 시킬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하나님 왕국의 해의 영광으로 인도하도록 준비시키십시오. 즉 인간의 이론과 하나님의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측정기를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여러해 전에 저는 그렇게 지도하여 주는 부모를 직접 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경, 고리와 성약 그리고 값진 진주를 한데 엮은 세권 합본 경전이었습니다. 그 책은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그의 권고를 조심스럽게 따르는 막 피어 나는 꽃과 같이 아름다운 딸에게 보내진 책이었습니다. 속표지에 그녀의 아버지는 다음과 같은 훌륭한 말을 써 넣었습니다.

1944년 4월 9일

내 사랑하는 마우린에게

너는 진리와 인간들의 철학이 갖고 있는 오류에 대하여

끊임없이 생각하며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있으리라 본다. 이러한 영적인 가운데에서의 발전은 내가 보내는 이 성스러운 책을 자주 읽고 너의 전생애의 보배로 간직하며 그로부터 얻어지는 지식을 향상시킬 때 크게 성장할 것이라 믿는다.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

헤롤드 비이. 리

저는 “겨우 선생이야?”라는 질문을 다시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일요일이면 항상 만나게 되는 교회 안에서의 교사에게로 차례를 돌립니다. 이렇게 하면 과거의 역사, 현재의 희망, 그리고 미래의 약속 모두를 만나보게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교사들은 바리세인과 같이 되기는 쉽고 사도와 같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배웁니다. 교사는 학생들에 의하여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즉 그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느냐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의하여 판단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말하는 네가 도적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로마 2 : 21-22)

영감적이고 정열적인 교사 바울은 우리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성공의 비결은 음침한 토굴의 감옥 생활을 했던 그의 경험을 통하여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그를 잡아갈 군인들의 쿵쾅거리는 발소리와 쇠사슬 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감옥의 간수가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싶어하면서 그에게 물기를 “항제 앞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의 도움이 필요하였느냐”고 물을 때 바울은 “나는 성령이라고 하는 고문을 모시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성령은 마아스 언덕 위에서 있을 때 바울을 인도해 준 그 성령입니다. 경전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고 외치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뻐하며 있느니라……우리가 그의 소상이라.” 하였습니다(사행 17 : 23-24, 25, 28)

다시 한번 “단지 선생이야”라는 질문을 되풀이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모든 사람을 감싸주는 교사가 한분 있습니다. 그분은 삶의 의무와 죽음의 운명을 가르쳐 줍니다. 그는 대접을 받는 생활을 하지 않고 대접을 하는 생활을 했으며, 받는 사람이 아니고 주는 사람이었으며, 자신의 목숨을 아끼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생명을 희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무엇보다도 사랑을 높이 평가했으며, 재산이 많은 사람보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마음의 보물을 간직한 사람을 찬양했습니다. 이 교사는 서기관들과 같이 행하지 않았으며 권세를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과 명예를 탐욕하며 “멸망으로 이끄는 대중과의 야합”의 철학이 세상을 지

배하고 있는 오늘의 우리는 이 교사가 모래 위에 단 한번 써 놓은 글자를 바람이 스쳐가며 지워버린 것 이외에는 결코 손수 써놓은 것이 한자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그의 법은 돌에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가장 훌륭한 교사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전 인류의 구세주이시며,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신적인 교사들이 그분의 인자하신 “와서 내게 배우라”고 초대하신 말씀에 응답하게 될 때, 그들은 많은 것을 배워서 그분의 성스러운 능력을 분담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교사의 훌륭한 영향력을 어렸을 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공과중에 그 교사는 세상의 창조, 아담의 타락, 예수의 구속자로서의 희생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존경하는 손님으로 모세, 여호수아, 베드로, 도마, 바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반에 모셔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본 일은 없지만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본받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아침, 같은 반원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매우 슬퍼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을 때처럼 그의 가르침이 그렇게 동적이고 그가 주는 감동이 한없이 가슴 속 깊이 울려 퍼진 때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빌리가 그날 아침 결석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공과의 주제는 많은 사람에게 잘 알려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행 20:35) 공과를 반쯤하고 나서 교사는 책을 덮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열어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반의 파티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불경기가 계속되던 그때에 “4불 75센트 있습니다.”라는 자랑스런 대답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참으로 인자한 소리로 “빌리의 집은 슬픔으로 큰 충격을 받고 있으며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다같이 그집을 방문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금을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작은 꼬마들이 세 정거장을 걸어서 빌리의 집에 들어가 그와 그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아버지께 조의를 표하던 장면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안계시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귀중한 파티 기금이 들어있는 흰봉투가 교사의 따뜻한 손에서 비탄에 젖어 도움이 필요한 빌리의 아버지의 손으로 전해질 때 모든 소년들의 눈에서 빛났던 눈물을 저는 그 무엇보다 아끼며 늘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우리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우리의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밝았고 기쁨에 충만해 있었으며, 우리 의동정심은 참으로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격려해주신 한 훌륭한 교사로 부터 우리는 “주님의 영원한 진리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도다.”라는 교훈을 배웠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슴 속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누가 24:32) 라고 하신 말씀이 메아리치고 있습니까?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화로 다시 돌아갑니다. 어린 소년이 “우리 아버지는 너의 아버지보다 높다” “우리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보다 똑똑하다” “우리 아버지는 박사란말이야”라고 조롱하는 소리를 들은 때, 그는 “너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보다 높고, 너희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보다 똑똑하고, 너희 아버지는 비행사고 기술자고 박사일런지 몰라도 우리 아버지는 선생님이야”라고 과감하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와같은 값지고 진지한 칭찬의 말씀을 주님에게서 상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가장 위대하신 교사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12월 주일학교 성찬식 성문봉독 전 후주곡

Roy M. Darley

주
일
학
교



12월 주일학교 성찬식 성문봉독

12월 주일학교 연습찬송

장년 주일학교 유년 주일학교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4장 7절

장년 주일학교 유년 주일학교
65장 “목자가 밤에 양 지킬 때” 144장 “그 어리신 예수”



사라 엠. 테너 자매의 가정, 가족 교회에 대한 헌신

엘리노 노웰스

임프르브먼트 이라 부편집인

● “그녀는 아내와 여성의 명예로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일생을 바쳤다…….” (존 엘. 크라크, 리스대학장)

젊은 선생으로서 캐나다의 알버타 힐스프링의 작은 학교에서 교사로서 처음 임명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는 몇개월 내에 그의 전생애의 방향이 바뀌게 되고, 남편과 같이 세상을 두루 여행하며, 왕족과 정부고관들 그리고 여러 종족과 교회의 윗분들과 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라 이사벨 매릴은 몇달을 제외하고 (그는 유타의 리하이에서 태어났다)는 계속 캐나다에서 보냈는데 말일성도들의 가족들을 위하여 집을 짓는데 도움도 록 부름을 받은 그녀의 부친이 이곳에서 캐나다 정부의 관계사업에 계약을 한 때

문입니다. 그녀는 마가렛에 있는 힐스프링학교와 칼카리의 정규교사 양성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힐스프링에서 사라는 이 학교의 새로운 교장이며 고등학교 교사인 키가 크고 미남인 나단 엘돈 테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드디어 1919년 12월 눈오고 추운 어느날 결혼을 했습니다. (그들은 후에 1923년 8월 알버타 신전 헌납식 때 신전 결혼을 하여 그들의 결혼을 성스럽게 했다)

결혼을 하자 자기가 하던 일을 모두 그만두고 오로지 가정을 편안하게 꾸미며, 남편의 교회 일, 시청의 일, 정부의 일 등 직업적인 일을 도와 주는데 힘썼습니다. 그후 몇년 동안 자기들의 집을 안정시키며 남편의 교육을 완전히

마치기 위하여 애쓰는 동안 그들은 축복을 받아 루스, 이사벨, 조라, 벅스, 헬렌 등 다섯명의 딸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두 결혼을 하였고 테너 가족은 26명의 손자와 한명의 증손자를 두었다)

최근 아이다호 텍스버그에 있는 리스대학에서는 테너 자매를 금년의 여성으로 추대했습니다. 시상식에서 존 엘. 크라크 학장은 그녀에 대한 찬사 즉, 사라테너 자매의 가정과 가족과 교회에 대한 헌신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려서부터 이상적인 여성의 자질을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예술, 문학, 역사, 음악, 연극 등의 교양적인 활동을 즐거움으로 생의 품위를 높였습니다. 당신의 가정적인 일에 대한 관심과 가치 부여와 가정과 자녀들에 대



한 힘있는 헌신은 진정한 모성의 진수를 그려 놓았습니다.” 또한 이 치사에서 그는 “학교의 교사로서, 교회의 여러 조직에서, 그리고 그외의 많은 보조기관의 지도자로서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범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테너 부대관장님이 앨버타 주정부의 입법관으로 그 뛰어난 실력을 발휘할 때, 그후 한 부서의 책임자가 되었을 때 그는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들도 도와주며, 그들의 가정이 원만히 운영되는가를 살폈습니다. 남편이 공무로 유럽, 서인도지나, 멕시코, 캐나다 전지역 그리고 세계의 여러곳을 돌아다녀야 할 때 그녀는 가능할 때는 언제나 그와 같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마음설레였던 경험은 영국의 에리자베스 여왕과 조지 6세

의 만찬에 초대받았던 때입니다. 그들은 또한 에리자베스 여왕과 필립공 그리고 여러 귀족들과도 식사를 같이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살던간에 테너 자매는 교회활동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렸을 때의 훈련과 교사로서의 경험은 초등학교, 주일학교, 청년 상향회, 그리고 상호 부조회에서 가르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와드의 청년 상향회와 상호 부조회 회장, 그리고 스테이크 보조조직의 보좌로 있으면서 활동 능력을 증대시켰습니다. 테너 부대관장님이 서유럽 선교부장으로 계실 때, 테너 자매는 그곳에서 상향회 일을 감독하기 위하여 유럽 청년 상향회 총본부 특별대표로 청년 상향회 역사상 최초로 그러한 직분을 맡아 일하였습니다

다. 1964년 그녀와 테너 부대관장님은 상향회 최고 영예인 그리너 금상과 엠멘 대상의 명예를 얻었습니다.

테너 부대관장님이 1960년에 교회의 12사도보조의 한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이것은 사랑하는 그들의 가족과 캐나다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딸들은 모두 캐나다에 가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쉬워하거나 뒤돌아 보지 않고 대관장단의 부름을 받아들였으며 솔트레이크시로 이사해서 새가정을 마련했습니다. 지금은 솔트레이크 계곡과 산들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 좋은 넓은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부대관장님과 테너 자매님은 1969년 12월 50회 결혼기념일을 하와이에서 이주간의 휴가를 즐기며 38명을 가족들과 함께 지

였습니다.

“약 2년전에 저의 남편이 금혼식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냐고 물으셨습니다”라며 그녀는 그때를 회상하며 “우리는 결혼 피로연을 하지 못했으니 가능하면 이제라도 꼭 갖도록 제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하고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저는 우리 온 가족이 하와이에 갔으면 좋겠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즉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으며, 모두 12월 17일 시애틀에서 만나 호놀룰루로 날아갔습니다”고 술회했습니다.

하와이의 교회대학은 크리스마스 휴가 중이어서 테너 일가는 교회대학 기숙사에 머물면서 직접 갖다 먹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그곳에 있는 여러가지 오락기구를 이용했습니다. 12월 20일 기념일에는 폴리네시아인 문화 전시관에서 그곳 민속무용을 즐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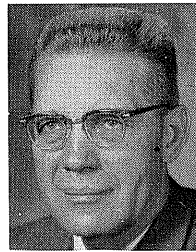
“이 여행은 정말 기대한 이상으로 훌륭했었습니다”라고 자매는 말합니다.

릭스 대학의 시상식 치사는 “여성으로서의 높은 자질”과 “남편에게 영감적인”점이 뛰어났다고 말했습니다. 테너 자매는 그녀 일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기도의 힘에 대한 믿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기도에 대한 간증을 가졌습니다. 저는 할머니께서 어머니와 함께 숲 속을 걸으며 기도의 열쇠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았으며 항상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저에게 전해주시는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그는 다방면에 많은 취미를 갖고 있었으나 사라 테너 자매는 모든 것을 그녀의 가족과 남편에 대한 사랑과 헌신에 대한 부수적인 것으로 돌렸습니다. “현재의 교회에 있어서의 저의 책임은 대관장단 제이보좌의 아내가 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제 욕심은 그분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사라 매릴 테너 자매는 진실로 자신을 여성과 아내의 역할을 하는데 다 바쳤으며 이 일을 명예롭게 만든 사람입니다. ○



구원은 가족 단위로

부루스 알. 맥킴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40차 연차 대회에서 하신 말씀

● 우리는 모두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의 일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분과 같이 가족단위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위대한 교리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지식의 열쇠 회복되기전
참 그 이유 몰랐으며
하늘의 부모 홀몸이라니
똑바로 이성을 보라

어머니 역시 계심은 진리
영원한 이성 말하네”

“연약한 이 생 내 떠나서
세상 생명을 마치고
부모 양친 하늘 궁전에서
즐거이 이 몸 맞으리
당신께서 하라신 과업
불초 내가 다 할 때
당신 곁에 함께 살라
허락하여 주소서”

—찬송가 117, 118장—

우리가 그분의 면전에 살고 있을 때 승영의 경지에 이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만드시고 우리가 발전하고 진보하여 그분과 같이 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죽음을 맛보고 영생을 바라볼 수 있게 된 이 복음의 계획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제시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불멸의 상태로 승화되고 계명을 지키며 복음의 의식에 순종한다면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약속을 받았 습니다.

영원한 삶이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 지께서 살아가시는 것과 같은 삶을 말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삶이 며 하나님의 삶은 영생입니다. 그러므 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면 진보와 발전을 이루었기때문에 그분과 같게 되 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된다면 그분이 불멸하심과 같이 우리도 영원해야 하며, 그분께서 풀고 계시는 속성, 인격 그리고 완전함을 우리도 얻 어야하고, 그분께서 누리시는 영광과 권능과 통치하심을 우리도 행사할 수 있어야 할뿐아니라, 그분의 영원하신 가족들 이후의 그와 같은 형태의 영원 한 가족들을 창조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경륜의 시대에 그분이 축 복해 주신 복음은 영생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와 모든 예언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소유하게 될 동일한 구 원의 체제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심 같이 완전하게 되 고 그리하여 완전하고 불멸하는 가족단 위를 창조할 수 있게 하는 법과 능력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참으로 위대 한 일은 창조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 간으로 만드셨고 그분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나게 해 주셨으며, 그분의 능력에 의해 지상의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되 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완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업은 구원입니 다. 그분의 대속의 희생으로 모든 사람 들이 불멸의 상태를 얻게 되었고, 믿고 모든 복음의 법을 순종하는 사람은 영 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일을 그리 스도께서는 완전하게 행하셨습니다.

모든 인간들의 중요한 일은 복음을 믿 고 계명을 지켜서 완전하고 영원한 가 족단위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말일성도 들은 할 수는 한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일을 완전케 가깝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은 해의 영광을 위한 영원한 결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

으며 그로부터 얻어지는 구원은 가족적 인 단위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몸을 가지고 태어나 는 그 순간부터 신전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 그시간까지 부모는 복음의 체제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이세 상에서 뿐아니라 다가올 세상에서까지 남편과 아내가 되게하는 성스러운 결혼 의 제전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준비하며 자격을 갖추도록 해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매년 하늘에서도 영 원히 매이는 거룩한 신권의 권능과 능 력으로 함께 인봉되는 그순간부터 모든 것이 계시된 종교와 연관을 맺는 그 순 간까지는 결혼 성약의 한계와 조건들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고안된 것입니 다. 그리하여 이 성약이 앞으로 올 생 애에서 효험이 있으며 미덕이 되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신전 결혼은 복음의식 의 최고봉이며, 주님의 집의 의식 가운 데 가장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단위는 현세에서나 내세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입니다.

그러므로 일생동안 다른 무엇보다도 가족들에 대하여 성의와 관심을 갖어야 합니다.

모든 중요한 결정은 가족에 주는 영 향을 먼저 고려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청혼, 학교교육 친구들의 선택, 직업, 취미, 거주지, 사 회생활, 구름활동, 인류에 대한 봉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시된 진리의 표준 에 대한 순종이나 그 순종의 결핍, 이 모든 것들은 가족에 대한 영향에 기초 를 두고 결정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 안 에서 가족의 완전함과 창조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남편들에게 다 음 과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은 마음을 다 하여 아내를 사랑하여 결합하며 다른 아무 여자라도 결합하지 말라.”(교성42 : 22)

주님은 아내들에게도 남편과 같은 책 임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간음하지 말라. 이와 비슷한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교성 59 : 6참조)

부모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는 자녀들을 빛과 진리 가운데로 데리 고 오며 복음을 가르치고 경건한 행위 로 모범을 보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이 자녀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에베소 6 : 1) 그리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출 애급기 20 : 12)고 명하셨습니다.

주께서 가족들에게 주신 권고는 다음 과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며 지지하라.”

완전한 복음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 라.

모든 가족들의 생활이 완전하도록 노 려하고 약함을 강하게 하고 길 잃고 방 황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올바르게 이끌어 주며 그들의 새로워진 영적인 강건함을 즐거워 하라.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혈연을 찾 아 그리스도에게로 초대하여 그의 선하 심을 힘입게 하며,

영계에 있는 죽은 혈연들을 위하여 신전의식을 통하여 그들에게 합당한 복 음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는 여자없이 남자없고, 남자 없이 여자없다고 쓰여있습니다. 완전하 게 된 교회에서도 주님의 가족형태는 부모없이 자녀없고, 자녀없이 부모없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가족이 중심이 됩니 다. 완전한 구원은 해의 영광에 있어서 의 가족단위의 존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그대로 계속되면 영생을 갖게 되는 것이고 가족이 가족으로 계속되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이니 하 늘은 말일성도 가족이 영원함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계획했을 뿐입니다.

구원을 받도록 하는 힘은 참으로 위 대하여 지상을 천국으로 만들수 있고 인간을 하나님으로 만들수 있습니다. 인간이 마음 속에 품을수 있는 가장 훌륭한 지식은 가족단위는 영원히 계속 되며 구원은 가족적인 사업이라는 생각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렸 습니다. 아멘. ○

복음에 속속들이 젖은 삶

선교부장 서 현보



● 1841년 11월 12일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그의 일기에 “물몬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책이며, 우리 종교의 종석이 되고, 다른 어느 책 보다도 오직 이 책의 계율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인간이 좀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나는 형제들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달 동안 우리는 각지부마다 물몬경 읽기를 계획하고 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이 경전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등 가능한 모든 활동을 전개하도록 독려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에 속속들이 젖은 삶을 사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된다고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물몬경을 읽을 때는 이 책의 목적, 즉 왜 이 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하는 점을 마음 가운데 확실히 알고 읽어야 합니다.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마음속으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물몬경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목적은 이 책의 저자들로부터 배울 수 있으며, 우리는 물몬경에서 일곱가지의 커다란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의 목적을 이해하여 이것을 읽고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 목적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져 합니다.

첫째, 물몬경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의 잔류민에게 그들의 선조들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신 것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둘째, 주님의 성약과 그의 자녀들이 영원히 추방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셋째, 이 기록을 읽으므로써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나라에 친히 나타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물몬경은 성경의 진리에 대한 하나의 증거입니다. 오로지 하나의 복음이 있을 뿐입니다.

다섯째, 물몬경은 성경에 있는 많은 것들과 빠진 것이나 잘못 번역된 것들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이것을 기록한 예언자들은 그곳에 나오는 사람들로 부터 한 민족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알고 배우기를

원하였습니다. 그 예언자들은 우리를 위하여 썼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이 살아갈 세상을 보았습니다.

일곱째, 물몬경은 인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성약에 의하여 영적으로 태어나서 그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언자들이 이 성스러운 경전을 기록할 때 마음 속으로 목적했던 바를 가슴에 새기며 물몬경을 읽는 것입니다. 회복된 교회의 조창기의 회원들은 물몬경에 대한 공부를 소홀히하여 예언자로부터 경고와 훈계를 들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예언자께서는 교리와 성약에 쓰셨습니다. 먼저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그의 백성들에게 “물몬경과 성경은 너희 교훈을 위하여 내가 주는 것이다.” (교성 33:16) 그리고 또 다른 때에 “이 교회의 장로와 제사와 교사들은 성경과 물몬경에 있는 나의 복음의 원칙을 가르치라” (교성 42:12)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우리를 포함한 모든 곳에 있는 성도들도 그와 똑같은 결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언자께서는 초기 성도들이 물몬경에 관하여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을 등한히 하는 것을 발견하시고 이에 대하여 분명히 “너희 마음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너희가 받은 것은 가볍게 다루었으므로 어두웠느니라.

허영과 불신앙으로 온 교회로 하여금 정죄 받게하였나니 이 저주는 시온의 자녀 곧 모든자에게 머물러 있느니라.

저들은 회개하며 새 계명 곧 물몬경과 내가 저들에게 이미 준 이전의 계명을 기억하며 말로만 할 뿐 아니라 내가 기록한 것에 따라 행하기 전에는 이 저주아래 머물러 있으리라” (교성 84:54-57)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계속하여 물몬경을 읽어야 한다는 사실의 중요성을 아셨습니다. 한번 뿐만 아니라 여러번 읽으십시오. 이 책이 쓰여진 목적을 잘 생각하며 읽으십시오. 만일 이렇게 행한다면 마음이 밝아져서 속속들이 복음에 젖은 삶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날로 발전하여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

말보다는 행동을

리차드 엘. 이반스

● 젊은이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간혹 그들 중의 일부가 따라가고 있는 묵인된 습관에 대하여 성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으로 인하여 어느 때는 부모나 교사, 어느 때는 상품 생산자나 판매자들, 불결한 오락물의 제작자나 매개자 또는 법의 집행을 소홀히 하는 자, 무례함을 조장시키는 자, 도덕적인 제율을 지키지 않으며 생의 보호수단을 조롱하는 자들의 태도나 행위나 본보기에 의하여 때때로 조성되며 허용되는 도덕적, 영적, 물질적인 환경이 일부분이라도 젊은이들에게 절대로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성인들의 무관심이나 그릇된 지도로 말미암아 즉, 젊은이들이 안전하게 따를 수 있는 모범을 우리는 보이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다 주어서는 안됩니다. 젊은이들이 자신이 한 결정이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을 좀더 잘 알아야 할 사람들이 어떠한 것일지라도 삶은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들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행동으로 보여 주기보다는 말을 더 많이 해주며 어느 때는 해주어야 할 말조차도 안해줍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점점 더 물질적으로만 부강하려고 하며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면은 오히려 점점 감소시키고 있고 너무나 무의미한 활동을 하는 그들을 그대로 방임해 두며 그들은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울수 있고 더 많은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으며 더 많은 날들을 이곳에서 살아 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지 못하며 만일 우리가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잘 돌보아 주며 그들에게 부탁한다면 그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에 알맞게 살아나갈 것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우리 자신의 생활을 통하여 그들에게 삶의 성실성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중대한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한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절박한 세상의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며 그들이 진정한 봉사로 도전을 받고 있으며, 신뢰는 받고 있는가를 잘 보살펴야 합니다. 그들을 훌륭한 인간으로 양성하려면 우리 자신이 젊은이들이 해야 할 바를 스스로 실천하여 보여 주어야합니다. 우리가 고상하거나 비천하거나 선하거나 악하거나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도덕적이거나 비도덕적이거나 깨끗하거나 불결하거나 유능하거나 무능하거나를 막론하고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하여 반드시 같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들에게 말을 해 주는 것이 좋은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 준다는 것입니다. ○

진리의 말씀은 유명한 물몬 태버나클 합창단의 노래와 함께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5분부터 600키로 싸이클의 서울 중앙 방송국 제2방송에서 방송되고 있으며, 560키로 싸이클의 AFKN에서도 매 일요일 오전 10시 5분부터 방송되고 있습니다.

성도의 벗

1970년 11월 1일 발행(매월 1회) 1932년 10월 4일 공보부등록

값 50원